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38호 (3월 8일~3월14일)

노작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 데 대하여

막나가는 부시, 핵전쟁까지



부시의 대리자 이회창 대선 전에 침몰시키자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8호 (3.8~3.14)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 데 대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 에서 한 보고
1946년 7월 22일



여러 선생들!

여러 동지들!

해방 후 북조선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민주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북조선에는 앞으로 통일적 민주조선을 건설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습니다.

특히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이 나온 다음 북조선에서 민주역량은 빨리 강화되었으며 수백만 군중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뭉쳤습니다. 주요한 사회단체들의 명칭과 거기에 든 인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동맹 …………… 35만 명
농민동맹 …………… 180여만 명
민주청년동맹 ……… 거의 100만 명
여성동맹 …………… 60여만 명
예술연맹 …………… 1만 여명

우리는 북조선에서 민주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에 기초하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세웠습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위대한 첫 과업으로서 여러 세기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정체시키고 저해하여 온 봉건적 토지소유와 봉건적 착취관계를 없애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원칙에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인민과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동원되어 과감하게 실시한 토지개혁은 조선의 민주화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사회경제적 지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약탈과 파괴로 말미암아 정체되었던 모든 산업, 운수 시설들은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고 있으며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은 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없애고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조건과 물질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발포하였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령의 실시는 노동에 대한 식민지적,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완전히 없앴으며 우리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적 해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을 개선하며 산업을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뒤이어 제정된 농업현물세제는 지난날 일제통치시대의 농민들에 대한 모든 가렴잡세를 없애치움으로써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며 농촌에서 토지개혁의 승리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농민들을 농업증산과 국가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였으며 농촌을 더 한층 활기 띠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철두철미 자기들의 이익과 전체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우리의 민족문화도 다른 부문들과 발을 맞추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던 교육문화기관들이 오늘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 교육문화기관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내용을 가진 새로운 민족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중앙과 모든 지방에 인민교육기관들과 민족간부를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 및 강습소들을 내왔으며 많은 성인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중앙정치간부학교, 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하여 4~5개가 넘습니다. 또한 새로 종합대학을 세우며 16개의 중등전문학교를 새로 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받은 자체의 능력 있는 민족간부들을 해마다 수천 명씩 건국전선에 내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도서관, 구락부, 극장, 신문사, 출판사와 같은 문화시설들이 많이 증설되고 있으며 과학자, 예술가 그밖에 수많은 인텔리들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시책을 받들고 새 조선의 민주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개혁과 경제문화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새 조선의 발원지가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더욱 큰 장애와 곤란을 물리치고 반드시 부강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튼튼히 뭉쳐야 하며 더욱 용감하게, 더욱 굳세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열렸던 소 미 공동위원회의 사업이 중지된 사실은 조선의 모든 애국자들과 정치활동가들에게 정치적 경각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 미 공동위원회사업의 중지와 그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약소민족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식민지화정책과 조선에 대한 그들의 야욕을 세상에 똑똑히 드러내놓았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우두머리인 이승만 도당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야합하여 조선의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할 데 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반대하여 왔으며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쇼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된 유럽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국제국내의 모든 반동파들의 음모를 박차고 민주주의적인 인민정권을 세웠으며 국가재건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방에서도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의 인민이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을 물리치면서 자기 조국의 자유



와 해방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세계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의 기치 밑에서 나아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문제도 역시 바로 이러한 기치 밑에 온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길을 따라 해결될 것이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음모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이승만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의 어떠한 매국책동도 철저히 때려부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조선이 나아갈 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 민주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완전히 독립하는 길,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해방 후 북조선에서 실천하여 온 새 민주조선 건설의 길이며 또한 통일적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길입니다.

모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올바른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튼튼한 통일단결과 그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조입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들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의 기초 위에서 많은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한집안사람처럼 굳게 뭉쳐야 하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기치 밑에 전체 조선인민을 묶어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를 하루빨리 세우기 위한 방책이며 조선의 완전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하려는 기본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조직하여야 전체 인민을 이끌고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승만 매국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일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투쟁을 통하여서만 통일적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으며 새 조선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더욱 널리 조직동원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더욱 긴밀한 협조와 통일적 행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 북조선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 민주조선 건설의 과업은 결코 어떤 한 개 정당의 단독적인 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민주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의 노력과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치투쟁에서나 경제문화건설에서 우리들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노력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발표한 20개조정강은 마땅히 우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공동강령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20개조정강의 정당성은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똑똑히 증명되었으며 정강에 제시된 과업들은 지금 북조선에서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새 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조선을 참다운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20개조정강에 밝혀진 노선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적 민주주의 임시정부도 마땅히 20개조정강을 기초로 하여 세워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를 더욱 강화하는데도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협의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같이 책임을 지고 서로 도우며 한결같이 노력하여 인민의 정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기초로 하는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는 반드시 최대의 관심과 성의를 다하여 인민위원회사업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서로 도우며 더욱 긴밀하게 늘 문제를 토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각자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며 오늘의 모든 사태가 이러한 조직체의 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영향을 주어 거기서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빨리 실시하도록 그들을 고무추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필요에 따라 때때로 모여서 토론하였을 뿐이고 한 개의 조직체로서의 상설적 협의기관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초 위에서 인민위원회가 창건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권기관이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의기관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필요성으로부터 나는 오늘 모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각급 위원회들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는 어떤 한 개 정당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협의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장의 직책은 매 정당의 책임자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맡아 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광복회-2

≪세기와 더불어≫ 제4권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어느 날 행군의 휴식 참에 나와 ≪대통 영감≫ 사이에는 민족통일전선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에스파냐,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같은 정당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 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 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는 나에게 눈덩어리 두개를 주면서 그걸 합쳐보라고 이르고 나 자신은 작은 눈덩이를 눈위에 굴려 그 두개의 눈덩이를 합친 것만한 눈덩이를 만들었다.

≪자 보십시오. 선생은 두 정당연합으로 한 덩이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구심력을 굴려 그보다 더 큰 덩이를 빚었습니다. 이래도 꼭 정당이 있어야만 통일전선체 조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동백은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내 손의 눈덩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 참 오묘한 이치올시다. 그렇지만 눈덩이는 눈덩이고 정당이야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자연현상 가운데는 사회의 현상과 이치상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길림 시절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 온 통일전선정책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을 결속시키는 데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됩니다. 군중이 있고 영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 수 있습니다.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동백은 뒷더수기를 툭툭 치며 ≪역시 교조가 문제이군.≫하고는 껄껄 소리를 내어 웃었다.

≪대통 영감≫은 우리 곁에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바로 장군 곁에 와서 인생 말년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존가치를 발견한 셈이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아주 쓸모있는 인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인간은 행복한 인간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행복한 인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거리를 찾았기에 행복해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찾아낸 일은 나폴레옹을 묻어다니던 다비드가 수행했던 일과 비슷한 것이지요. 다비드가 미술화폭에 옮겨놨던 일을 나는 나의 일기장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역사적 행적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역사적 행적을 말입니다.≫

이동백은 결의대로 매일 일기를 적었다. 한두 끼, 혹은 며칠씩 굶는 적은 있었어도 그가 일기를 쓰지 않고 번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역사 저술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는 입대후 사령부 비서처에서 사업하였으며 후에는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의 주필로 출판소 책임자 사업을 겸해 보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문건들과 사진들을 수집해 뒀던지 비서처가 한 번씩 자리를 옮길 때에는 여라문 개나 되는 문서배낭들과 등사용구들을 옮겨 주기 위한 운반대로 여러 명의 전투원들을 그에게 배속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제인가 김주현이 그 숱한 짐짝들을 정리해서 절반쯤이라도 줄이라고 권고했다가 되게 면박을 당한 일이 있었다.

≪아니, 이 문서장들이 ≪민생단≫문서보따리 따위 같은 줄로 아는가. 자네가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안목은 넓지 못한 사람이야. 저 짐짝들은 나 같은 목숨 열백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군사직급으로는 연대장이지만 이 짐짝 앞에서는 졸병이나 같애. 국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나 해?≫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지휘관들은 ≪대통영감≫의 짐짝이 아무리 많아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운반대를 고스란히 붙여 주곤 하였다.

그가 기록, 수집, 보관한 그 숱한 문서들과 일기들과 사진들이 소실되지만 않았더라면 오늘날 그것은 ≪대통 영감≫이 언명한 대로 나라의 만년재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동백이 어쩌다 오발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가 나폴레옹을 자주 입에 올리곤 한 끝에 어느 한 경위대원이 그를 ≪나폴레옹 숭배자 영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때마침 이동백은 분해소제를 마친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충이 같은 녀석, 내가 누구를 숭배하는가 하는 건 이 권총이 말해줄 게다.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동백은 만탄창이 된 권총을 쳐들고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 뜻하지 않았던 오발사고로 인하여 로모정자 숙영지에서는 비상소집 소동이 벌어졌다. 지휘관들은 경고책벌과 함께 한달간의 무기휴대 금지 처분을 주어야겠다고 을러댔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하자고 하였으나 군율은 에누리가 없었다. 사고를 낸 권총은 김산호에게 회수당하였다.

보배같은 ≪대통 영감≫이 우리 부대에 굴러든 것은 인복이 있는 나에게 차례진 큰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로 귀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 우리를 도와 준 셈이 되었다.

10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혐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사단이 편성되고 마안산 아동단원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된 다음부터 나는 모든 힘을 조국광복회 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에 집중시켰다. 비록 간고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오만가지 시름거리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풀려서 모든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동백은 김산호와 함께 이 사업에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성실하고 빈틈없는 방조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입대하자마자 곧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망라시켰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원은 김산호와 이동백이었는데 김산호는 대외조직과 연락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다니며 일을 보고 대내에서 준비사업을 주관하여 맡아본 것은 이동백이었다.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 데서도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때 매 조항을 그와 토론도 하고 초고도 그가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동백은 자기의 문투가 고루한데다가 나의 의도를 정확히 쪼아박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사절하였다. 그래서 기초작성은 내가 하고 그가 보충하는 식으로 창립문건들을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갔다.

그와의 토의에서 가장 크게 의견 상치가 된 것은 강령의 첫 조항이었다. 강령의 첫 조항에 어떤 내용을 앉히는가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가 어떠한 이념과 투쟁목적을 가진 어떠한 성격의 정치단체인가를 단마디로 규정짓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2천만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짓부수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을 앉히자고 하자 이동백은 머리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기더니 도리질을 하였다.

≪무산계급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으니 서운합니다. 강령 첫 조항에 공산주의 냄새가 없으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숱한 주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말은 계급적 성격도 모호하고 어쩐지 민족주의 냄새가 납니다.≫

훗날 백두산밀영에서 박달과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도 역시 조국광복회 강령 첫 조항에 대하여 이동백과 꼭 같은 논조의 말을 하였다.

확실히 그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이비 맑스주의적인 견해가 널리 오염되어 있던 시기였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는 민족적 이념과 상치되는 사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소한 민족적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히 계급적 원칙과 국제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야만 노동계급과 전인류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 명제를 매우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데 기인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일국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이 채 성숙되지 못했던 역사적 시기에 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리라고 예언하였다. 노동계급의 전복대상인 각국 부르주아지가 민족적 이익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 부르주아계급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세계적인 혁명위업은 망쳐질수 있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부르주아적 지배하에 있는 모국이 결코 조국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가운데서 반드시 국제주의, 사회주의 편에 서야 했다. 바로 이러한 견지로부터 맑스주의 고전가들은 노동계급이 이른바 애국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속에서 언제나 민족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할 것을 가르쳤다. 맑스는 파리코뮨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코뮨 참가자들이 반동의 소굴인 베르사이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외적인 프러시아군이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때 국내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애국주의에 배치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 데서 온 것이었다고 단언하였으며 레닌은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조국방위≫의 구호 밑에 제가끔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 편에 붙은 것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변절로 낙인하였다.

자기 민족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적 치부를 증대시키려는 환장한 부르주아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에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고 도와나서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려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고 전쟁보이코트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민

지 예속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과 애국주의의 기치를 드는 것은 곧 종주국의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그리고 국제혁명위업에 다같이 기여하게 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무조건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 데 바로 사이비 공산주의자들,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실천적 착오가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도 차이도 없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역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념도 지향도 애국애족의 감정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민족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온 민족앞에 과시하였으며 드디어는 민족해방투쟁의 진두를 떳떳이 나서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장구한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람찬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조국광복회 창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광복회≫라는 명칭 자체도 당당하게 내걸고 강령의 첫 조항에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의 자력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동만유격근거지에 세웠던 것과 같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데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듣고 난 이동백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이제는 됐습니다! 눈뜬 소경이 됐던 나는 장군과 논쟁을 한 덕에 불구를 면케 됐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강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상치되는 의견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이처럼 주권문제의 해결을 조선민족앞에 나선 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에서는 또한 혁명적인 군건설과업도 제기하였으며 경제관계분야에서 일제와 매국적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일본 국가,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과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며 빈곤한 인민을 구제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업들도 명시하였다.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사상은 민족자본과 매판자본의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애국적 민족자본을 장려하며 민족자본가는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지지하여 반일공동전선에 묶어 세우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과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반일적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일반을 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과 비록 부르주아라는 명칭은 띠고 있으나 그 지향에서 애국적이고 실천에서 반일적인 모든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사회문화적 과업과 대외적 과업도 제시하였다.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 애국적 지주들의 문제에서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강령 첫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미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동백은 놀라울 정도로 나의 견해를 앞질러 알아맞히곤 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김산호나 오백룡과 같은 사람들이 옹졸한 태도를 취하였다.

내가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창립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된 편지들과 선전물들을 준비하였다. 실로 일분 일초의 허실도 허용하지 않고 다 잡아 쓰던 분망한 봄이었다.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준비위원회의 최종 토의에 붙인 곳은 만강부락의 허락 여촌장네 집이다.

≪대통 영감≫은 지난날 이른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던 파쟁꾼들은 변변한 강령조차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눈이 시뻘개서 헤게모니 쟁탈전만 일삼아왔다고 통탄하면서 이제는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더 밝게 비쳐줄 새로운 등대불이 나타났다고 퍽 좋아했다.

4월말에 모든 준비를 끝마친 우리는 창립대회 장소를 동강수림으로 내정하고 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청장을 받은 대표들이 그럭저럭 거의다 모여왔으나 꼭 참석하겠다고 답장까지 보내왔던 남만의 이동광과 전광(오성륜)이 대회가 끝나도록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오지 못하였다. 국내 대표로는 강제하의 조직선을 타고 벽동에서 천도교 대표와 농민 대표가 왔고 온성지구의 당조직선을 타고 교원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이 각각 한 사람씩 왔다.

역사적인 조국광복회 창립대회는 5월 초하룻날부터 시작되었다. 꽃은 만발하지 못하였지만 만산에는 봄빛이 짙었다.

회합을 앞두고 대표들은 모두다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통칭하여 동강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는 15일 간이나 진행되었다.

나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기치 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할 데 대한 과업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경 연안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할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보고가 후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자≫라는 제명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나는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대회 심의에 붙였다.

우리는 10대강령에서 1930년대의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상호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전략전술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각계층 애국적 인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전도를 명백히 밝혀 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강령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을 토로하였고 강령에 제시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표들의 가슴을 이만 못지않게 격동시킨 것은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에 대한 토론이었다.

창립선언의 구절구절들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거머잡았다. 특히 온민족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 것을 호소한 부분은 회의참가자들을 상당히 격동시켰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이 채택된 다음 이 선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데 대한 첫 발기도 내가 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 사업도 내가 주관해 왔으며 또 강령과 창립선언도 내가 작성한 것만큼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응당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광복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것만큼 민족적 형식을 띠어야 했다. 그러므로 발기인으로서는 과거 의병운동이나 3・1운동 시기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명망이 높고 나이가 지숙한 애국지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당시까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로 만주지방을 투쟁무대로 삼아 싸워 왔기 때문에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국내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백두산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들이 설치되고 무장투쟁이 국내 깊이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움직임과 투쟁에 대하여 국내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아마 1936년 3월 어느날 ≪매일신보≫였다고 기억된다. 그때≪매일신보≫는 장백현에 150~16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진출하였는데 ≪부대의 수령은 **김일성**이라고 한다.≫라고 슬쩍 언급하였다. 이것을 시발로 국내의 출판물들은 우리의 활동을 자주 보고 하였다.

나는 대회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 누가 첫 발기자였고 누가 준비위원회를 책임져 왔고 또 누가 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무개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모두다 우기는데 그런 사실이나 따져가며 나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2천만 동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조국광복회에 결집해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 나를 동포 민중의 한 아들로 여기고 민중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했다고 치면 그만이 아닌가,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고 나이도 지숙하고 명망도 높은 애국지사들로 공동발기인을 삼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동백과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나의 제안에 먼저 반기를 들고나선 것은 이동백이었다. 그는 연세나 지난날의 명망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할 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전민족을 대표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맡아 나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국내외를 통틀어도 김 장군밖에 없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발기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광복회 회장도 마땅히 김 장군이 돼야 하고 발기인도 김 장군이 돼야 하다고 다시금 고집해 나섰다. 그는 나의 제안을 참작하여 나와 함께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자고 하였다.

신중한 토의 끝에 결국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 내가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되는 데 동의하였다. 나의 양보를 받자 이동백이도 발기인으로 나서는 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5월 5일에 발표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에는 김동명, 이동백, 여운형 세사람의 이름이 공동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나에게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붙여 준 것은 이동백이었다. 내가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만 동의하겠다고 하자 그는 더 우기지 못하고 생각을 더듬다가 가명의 성을 그대로 김씨로 하고 이름은 동녘 ≪동≫자 밝을 ≪명≫자를 붙여 ≪동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동명≫이라고 달게 되면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여러 모로 뜻깊은 이름으로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김동명≫이라는 가명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발표한 조국광복회선언은 그 후 국내의 여러 곳에 발송되었는 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자기대로 복제하여 발표하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저명인사의 이름을 발기인으로 바꾸어 써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국광복회 명칭 자체도 동만에서는 동만 조선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면 남만에서는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 당역사연구소에서 발굴한 조국광복회 선언문들에 더러 오성륜, 엄수명, 이상준(이동광), 안광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런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나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날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혁명의 군중적 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 있고 체계성 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투쟁 시초부터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인내성 있는 준비를 해왔다.

조국광복회 창립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위력한 산물이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하게 선포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밀어가는 전환점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조선혁명 자체 발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각지에서 그것을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 나왔다. 선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군 부대들이었다.

조국광복회 창립이 선포된 직후 조선혁명군 정부참모장으로 있던 윤일파는 우리에게 서한을 보내어 조국광복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연계를 지을 것을 희망해 왔다. 또한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운동자 박 모는 불원천리하고 만주까지 찾아와서 조국광복회 남만 대표들을 만났다.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 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종사한 애국지사로서 민족주의운동자들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서 조국광복회 사업을 널리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전민족적이 무장역량으로서 ≪독립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놓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3・1월간≫창간호에 이동백이 ≪천도교 상급 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천도교 도정이었던 박인진도 조국광복회가 창립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리를 찾아 백두산밀영을 방문해 왔었다. 천도교 청년당에 속한 100만 당원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때의 일이다.

이창신, 이제순, 박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연속 우리를 찾아왔고 조국광복회의 조직확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단시일 안에 수십만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 조직으로 확대발전한 조국광복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아마 큰 책 몇 권에도 다 담기 어려울 것이다.

1936년 5월 백두산 북쪽 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 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

고결한 인품을 지니신 분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4일



오늘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만민을 매혹시키는 그처럼 고결한 인품에 대한 사연을 전설처럼 전해가면서 그분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명장이 나면 용마와 보검을 가지게 마련이고 천하의 장수들이 그 휘하에 구름처럼 모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이 얼마나 높았으면 조국을 등지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분의 품을 찾아 평양으로 달려가며 이남 인사들과 민중들도 사선을 헤치며 이북으로 가겠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야 공화국의 품으로 찾아간 최덕신선생의 경우만 봐도 **김정일**장군님의 뛰어난 인품에 관해 잘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최덕신선생은 평양으로 갈때 자기를 이북에서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를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최덕신선생 자신이 한평생 반공으로 살아왔기 때문인거였죠. 하지만 그는 연공합작의 세찬 보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높고 숭고한 인품과 덕망에 스스로 끌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이 평양에 가자 과거사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품어주셨고 한번도 찾아뵙지 못한 부친의 묘소도 찾아보도록 다심하게 보살펴주셨어요.

최덕신선생은 자신의 인생행로를 두고 부친의 묘소앞에서 용서를 빌었대요. 하지만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그 죄는 부친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마음속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게 하는 최상의 영광도 베풀어주셨어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때 뒤늦게나마 연공합작의 길에 나서게 된 그를 환대하시면서 자식으로써도 알지 못했던 부친 최동오선생의 애국충정에 관해 오랜 시간 말씀하셨고 그가 이빨이 나빠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못내 심려하셨다 그래요.

이 사실을 아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의 평양시발날짜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새 이빨을 해넣고 떠나도록 또다시 높은 선정을 베풀어주셨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최덕신선생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 했답니다.

최덕신선생은 조국과 민족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가림이 없이 따뜻이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 살아야할 위대한 품, 자애로운 어버이품이라는 것을 폐부로 *****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심정을 만방에 공개하기 위해 ***를 녹음했고 그 자리에서 최덕신선생은 ≪오늘 조국에서 주석님의 뜻과 인품을 그대로 지니시어 여러분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는 **김정일**동지를 주석님의 위업을 승계해나가시는 영도자로 추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된 일입니다. 그분은 사상이론에 능통하시고 영도예술에 전능하신 절세의 거인이실뿐 아니라 인품이 한없이 고매하신 위인이십니다. 민족의 장래가 안심되고 미래가 낙관됩니다. 인간이 갖추어야할 최상의 인격과 품격을 지니시고 만민을 매혹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민족된 영예와 자부심이 하늘에 닿은듯 합니다.≫라고 목청껏 터쳤던 겁니다.

훗날 최덕신선생은 여생이나마 조국을 받들자고, 겨레가 안겨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영영 안겼는데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신 장군님께서는 최덕신선생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그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셨답니다.

이렇듯 만사람의 매혹을 자아내는 위대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최**선생도 연공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고 문익환목사 또한 평양을 방문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열혈 청년학생들과 각계 인사들의 평양방문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몇해전에는 오익제선생이 이남 사회를 결별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을 찾아 평양에 영주했으며 오늘도 만복을 누리며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사상과 영도의 거장이시고 숭고하고 거룩한 인품과 덕망의 소유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만이 지닌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더없는 행복인 겁니다.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에 새기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된 강성대국의 단상에 높이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6.15남북공동선언실현투쟁에 과감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 얄팍한 웃음 뒤에 무서운 흉심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7일~8일

지금 항간에서는 이회창의 얄팍한 웃음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흉심이 깔려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반민족 역적질만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에 대한 정평이라고 할겁니다. 오일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한나라당총재인 이회창에 대한 비난과 지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앞에서는 입에 침발린 소리를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언동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오 일 : 지금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열기는 비상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회창은 각계 민중의 비등된 자주민주통일열기를 거세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어요. 특히 그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돌아앉아서는 자기의 흉심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사회자 : 말하자면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격인데요. 그럼 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요.
오 일 : 무엇보다 이회창이 대미추종과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악랄하게 일삼고 있는데 대해 먼저 얘기돼야한다고 보는군요. 아시다시피 최근 부시는 한국을 행각했을때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속에 없는 대화발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이회창은 이에 적극 추종하면서 미국의 대화의지를 기대했다느니 지지한다느니 뭐니하며 아양을 떨었어요. 얼핏 들으면 이회창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달라요. 부시가 대화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 깔린 북측의 체제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과 대량살상무기문제, 미사일문제 등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제창하면서 부시의 망발을 지지한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호전정책을 지지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라고 마구 떠들며 그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제넘는 소리를 했으니 그가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자 : 옳습니다. 그가 얼마전 미국을 행각할때도 한미간의 외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했지만 미국에 가서 한 언질은 결국 북을 심히 자극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망언들뿐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회창은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미국에 빌붙어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잘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팎이 다른 언동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건 특히 남북관계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일 :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외가 격찬하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악랄하게 헐뜯었고 그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별의별 못된 짓을 다했어요.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그처럼 기염을 토하던 이회창은 정작 이산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이 성사되자 그것을 외면하고 얼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딴전을 피웠고 비





전향장기수들의 북행길에는 깡패들을 동원해 길을 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그런 망동을 부렸는가 하면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복원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무슨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야단쳤죠. 지난해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과 북, 해외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앉은 민족통일대축전이 마련되고 가장 성대한 통일축제가 성과리에 진행되자 돌출사건을 만들어 복작소동을 벌인 것은 그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매카시즘소동을 일으킨 것도 이

회장이고 남측의 무성의와 비도덕적 언행으로 모처럼 마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쾌재를 올리며 미쳐 날뛴 것도 바로 이회창이죠.

사회자 : 지난 대선때에도 그렇죠 이회창은 그때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해 금강산관광을 대선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퍼주기라는 감투를 씌우고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어요. 결국 이회창은 앞에서는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단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반통일분자라는 걸 실증해주는데요. 이회창은 민족자주와 통일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 민생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철폐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회창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고조되고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한나라당내에서까지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자 이미 국보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 논의하겠다고 했고 그 전해인 2000년 7월에도 국보법은 개정전후와 그후 남용의 소지는 어찌됐든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완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난해 가뭄을 구실로 국가보안법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뭄과 국가보안법이 하등의 인연도 없거니와 설사 연관이 있다면 가뭄이 끝난 후에도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걸 보면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문구하나 고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회창은 북을 걸고들면서 국보법철폐의 시기상조를 고창했고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를 운운하며 무장해제니 법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느니 뭐니했는가 하면 악법도 존중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했죠.

사회자 : 이회창이야말로 천하에 둘도없는 악법고수론자인데요.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일 :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우선과 민생을 외치며 마치 여기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회창은 특정재벌들을 비호하고 살찌우는데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철면피하게 놀고 있는가 하는 건 지난해 5월, 각계에서 한나라당이 재벌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정면으로 재벌개혁을 지향한다고 말한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와 거의 동시에 발표된 한나라당의 세재개편방향에 많은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재벌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몇억원짜리 집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가진 자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잡조만 있었던거예요. 그런가하면 또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산적돼 있어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을때에는 한달동안이나 국회를 버리고 거리와 나와 무슨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똥딴지같은 일을 벌어놓아 비난을 들었습니다.

사회자 : 이회창이 길가에서 노점상들과 악수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에 대한 병문안 등을 하는 것 등은 굳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올려보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언젠가 지하철에서 한 가정주부가 쓸데없이 위세를 부리지 말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면박을 주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한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니죠.

민생문제는 그렇다치고 한국 정치의 악순환으로 되고 있는 지역정치와 인맥정치를 두고 이회창은 지난 국회전에서 아무런 **도 없다고 보는데요.

오 일 : 옳아요. 이회창은 평소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역주의, 지역을 볼모로 한 정치지역화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만극이예요. 지난해 6월 한달사이에만도 이회창은 4차례나 충남지역을 찾아가 자기가 충남사람이라는 걸 강





조하면서 지지표를 구걸했고 전주 이씨 종친회모임에서는 전주 이씨가 500년 동안 국가를 경영한 집단으로 비록 왕조는 끝났지만 정신적 지반은 있다면서 씨족감정을 고취해 대권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심을 더욱 드러냈어요.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는 이회창이기에 광주 망월동지역에 가서는 당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민주주의 터를 닦은 광주시민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미화분식하는 그런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회창이 얼마나 안팎이 다른 인면수심의 저능아인가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 한나라당내에서 이회창의 인맥들이 포진하고 있고 국가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사조직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귀맛 좋게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실제로는 나라와 민족앞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회창을 고운 눈으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민족, 민중의 암적존재인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권력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한인 이회창을 절대로 권좌에 앉힐 수 없죠. 이런 자에게 찍어주면 더큰 불행밖에 돌아올게 없습니다.



한나라당, 깨질 조짐 보인다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0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이 총재로 있는 한나라당이 당내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한나라당 부총재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총재로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이 밝힌 탈당이유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거부한채 어떻게 하든 집권만 하겠다는 이회창의 기회주의적인 행각에 더이상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탈당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 김덕룡 의원은 박의원의 탈당은 *** **하며 날로 경직돼 가는 이회창의 1인지배 정당체제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고 탈당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경선불참을 선언한 강삼재가 한나라당 부총재직을 아주 박차는 등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곧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대단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경선을 앞두고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회창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이고 집권욕에 환장한 놈입니다.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될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없다느니하면서 시비했고 6.15공동선언문이 발표될 때에는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문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나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갔을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북을 비난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을 지지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습니다.

이회창은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에 입주해보려고 당내에서 ****을 부리고 대선후보를 경선이 아니라 ****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친미사대매국노를 그대로 두면 대선도 *******대선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회창과 같은 특등야심가가 한나라당 총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지탄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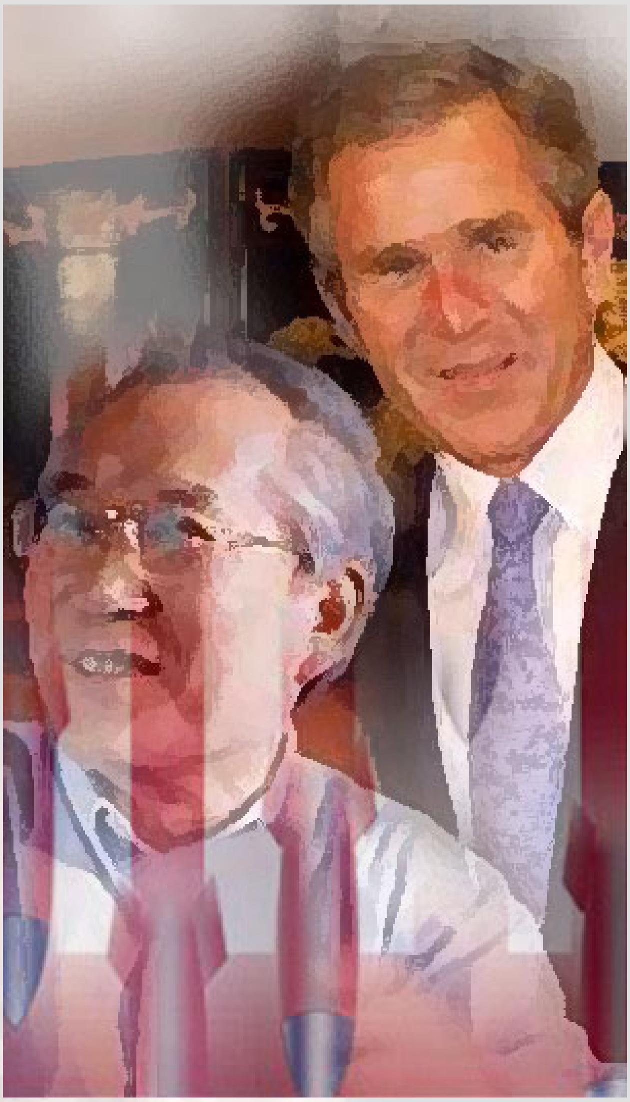
이회창이 그동안 역사와 민족앞에 저질러온 죄악을 잘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에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써의 자기의 앞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한나라당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은 한나라당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계에서 즉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은 미국의 대변자인가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0일~11일





최근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친미주구로써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놓아 우리 민중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해소에 있다고 하면서 북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망발을 줴쳐댔다. 그런가하면 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서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느니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한다느니 하며 떠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공동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야말로 악의축론을 부르짖으며 북을 군사적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하는 미국 호전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친미주구의 넋두리라 해야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부시의 서울 행각을 계기로 미행정부의 강경보수파와 호전분자들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벌이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부시를 비롯해서 체이니, 라이스, 파월과 같은 호전분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축≫론을 운운하며 대북강경발언으로 북을 위협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고취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과연 북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공할 무기들을 가지고 도처에서 군사적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평화를 파괴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수괴이다. 미국은 이 땅에 수많은 대량살상무기를 배비해놓고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면서 북이 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역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수작인가. 이회창의 작태는 그가 미국의 사환꾼으로써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하기는 그가 지난 1월 미국 행각시에 부시행정부의 고위정객들을 만나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부아첨하며 친미주구, 사대매국노로써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면 미국상전의 더러운 발바닥도 서슴없이 핥아먹는 자가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이야말로 털끝만한 민족적 양심도 없는 민족반역자이고 권력욕에 환장이 되어 흉악한 짓도 서슴지않는 정치간상배, 인간추물이다.

이회창과 같은 역적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이고 결국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오게될 것이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화근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이 이회창의 더러운 정체를 똑바로 보고 이 흉악한 민족반역아를 정계에서 지체없이 쫓아내기 위한 투쟁을 보다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회창, 일본에서 또 반북 망언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2일



방일중인 이회창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을 행각중인 이회창은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북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북이 신뢰가 없다느니 하고 짖어댔습니다. 그리고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보였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까지 밴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민족반역적 작태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때문입니다.

미국 부시정권은 출범후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앞길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온 것이 바로 이회창일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편에 서서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악의에 찬 험담을 일삼았으니 이보다 더한 미국의 충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비호두둔해 나선 것입니다.

부시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은 곧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침략도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두고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이 반북적인 악담을 써가며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노골적으로 비호두둔해 나선 것은 그의 체내에 민족의 피가 아니라 매국배족의 검은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안중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일신의 더러운 집권욕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동족을 걸고 들며 미국 상전에 추파를 던진 사대매국역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역적중의 역적이고 매국노중의 매국노입니다.

가소로운 것은 이회창이 날뛰고 제가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따위 민족반역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양키를 찾아가 미상전의 대북강경정책 각본을 되받아 외우며 미친듯이 줴쳐대더니 오늘은 또 일본 쪽바리들을 찾아가 혓바닥을 핥으며 동족헐뜯기에 광분하고 있으니 이회창의 행위야말로 온 국민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제 주제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얼간망둥이의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에 미쳐 돌아치는 이회창이 권좌에 올라앉으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우리 민중은 핵참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전 민중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극악한 사대매국노 이회창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문맹자 이회창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0일~12일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잘 아는 김모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회창에겐 정치인다운, 지성인다운 면모는 꼬물만치도 찾아볼 수 없고 그에게서는 개망나니, 정치깡패의 기질만이 물씬물씬 풍긴다고 그럽니다. 이회창이 독설을 내뱉을때면 가슴이 섬찟섬찟하다는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회창이 대통령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정치무식쟁이, 정치깡패가 대통령꿈을 꾼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할겁니다.

≪정치문맹자 이회창≫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최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올해에 어떻게해서든지 대권욕을 이뤄보기위해서 발악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치문맹자라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김현규 : 이회창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낙제생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인데요. 최근에 와서 그것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은 부시의 한국행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에 대해 별의별 악담을 다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는 한국행각시기에도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또다시 떠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망언에 대해 세계가 비난하고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으며 미국내에서까지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직대통령과 고위장관들, 미공화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회창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시의 망발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라느니 북이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느니 뭐니하며 주제넘는 소리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지금 반미감정, 반부시기운이 어느 정도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걸 식별하고 처신을 했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사고능력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건 이회창이 대미추종을 하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험담을 하면서 동족을 걸고드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이고 초보적인 정치감각도 없는 인간추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쓸개빠진 소리를 한 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얼마전 미국을 행각했을 때에도 이회창은 미국 호전광들을 찾아가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북의 무력을 휴전선일대에서 후퇴배치해야한다느니 핵개발저지니 뭐니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등장했을 때에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한나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앞발을 치며 쾌재를 올렸습니다. 또 온 인류가 반대배격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유독 이회창은 적극 지지해 나섰습니다.



이회창은 바로 이런 자이기에 지난해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국이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며 외교적 실책이라느니 망신이라느니 하며 미국의 대리인처럼 야단법석했는가 하면 기회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고창하는 망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도 이회창은 민족민중의 존엄과 이익을 미국침략자들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추악한 매국역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 우리 민중은 물론 한나라당내에서까지 반이회창기운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닌데요. 원래 이회창은 일찍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자로써 무슨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정치비전도 없는 정치간상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몇해되지만 그에게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 일본인 기자가 이회창에게 ≪한나라당은 개혁을 주장하는가, 보수를 주장하는가≫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였어요. 이회창은 그 일본인 기자에게 ≪한나라당은 개혁적 보수를 주장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속에서 폭소가 터졌고 이회창의 심복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퍼져 큰 웃음거리가 됐죠.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핵심임원들까지 보수는 보수고 개혁은 개혁인데 그것을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회창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그게 하도 보기 딱해서 근간에는 이회창 심복들이 이회창의 정치이념을 실용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릴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무근거한 억지주장입니다. 그는 남을 물어뜯는 것만 할줄 알았지 방법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험담군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나라당내의 어디에서나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출신의 한 전직의원도 ≪이회창은 여야 노선갈등때마다 버티기만 했지 한번도 자기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나라당의 당직을 지낸바 있는 그는 ≪내가 있는 4년동안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정책적 대안과 이념적 지향은 무엇이였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항상 비판만 있었지 이회창이 자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비판만 할줄 알지 자기의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에게서 실망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라고 말했고 한국의 보수언론들까지도 이회창을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 총재≫, ≪국정엔 협조않고 정쟁만 일삼는 자≫, ≪국가경영비전이 없는 정치인≫으로 낙인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가 이회창의 정치행태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탈당한 것도 그의 정치무지와 크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회창은 어떤 정치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언어구사까지 매우 졸속하고 저열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그는 정치적 언어구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정잡배들도 무색케하는 끔찍한 말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시기 기자들에게 한 폭언은 그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회창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두명의 기자들을 지목하면서 ≪너희들 씨를 말려버리겠어. 창자를 뽑아버릴꺼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말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회창 심복들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회창의 험한 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지난 총선시기에 4월초 제주시청앞 정당연설에서도 ≪이 정권을 도끼로 내리찍자.≫는 폭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창자론≫, ≪씨말리기론≫에 이어 ≪도끼론≫까지 등장했던 겁니다.

사회자 :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에게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정치인, 야당 총재라는 이회창이 상식이하의 험담을 망탕 줴치고 있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회창의 실언이 아니라 체질화됐다는데 있어요.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이 지금 화해, 단합하고 통일해야할 북의 형제들을 걸고들면서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는 것도 그의 체질화된 독사근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이 대권야망까지 품고 날뛰고 있으니 정말 분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죠.

사회자 : 옳습니다. 이회창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친미사대매국역적일뿐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협잡군이고 모리간상배입니다. 이런 추악한 인간쓰레기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죠. 각계 민중은 미국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비열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대권욕을 채워보려는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야 할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무식쟁이, 야심가가 권좌에 앉으면 정치가 엉망이 되리라는 걸 너무도 잘알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비주류 탈당과 빌라게이트 파문

≪이회창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근혜 의원의 탈당에 이어 김덕룡 의원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거기에다가 강삼재 의원이 부총재직 사퇴를 선언하고 비주류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당내 민주계가 김영삼 전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 총재와 결별하고 제3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홍사덕 의원은 불공정경선을 지적하며 후보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회창 대세론≫만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떠받치고 있던 이 총재 진영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이 탈당 불사를 시사하고 있을 때만 해도, ≪나갈테면 나가라≫고 했던 주류측 인사들은 예측하지 못한 이같은 사태진전에 당혹해 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총재가 거주하는 ≪빌라타운≫ 파문까지 불거졌다. 105평짜리 고급빌라 3채를 가족들이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경위야 어찌되었든간에 서민들의 정서를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97년에 홍역을 치렀던 아들의 병역문제에 이어 ≪귀족정치인≫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로 나설 사람이 그 정도의 감도 없었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이 총재 주변에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사람조차 없느냐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이 총재 진영의 허약한 준비태세를 힐난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자칫 97년 대선의 재판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총재의 주변에서 ≪이회창 대세론≫만을 신봉하며 오만을 떨었던 결과이다.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정권잡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당개혁을 한다고 난리피울 일이 무엇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 동안 이 총재 주변 인사들이 보여왔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은 철저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이제 이회창 대세론은 급격히 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신당이 출현하게 될 경우 대선은 최소한 3자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며, 특히 영남권 표를 잠식당할 이 총재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에 이어 김덕룡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창당에 손잡고, 여기에 정몽준 의원이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을 조건으로 합류하는 등, ≪50대 신당≫의 외형을 갖추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삼 전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한나라당 내 민주계 일부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들 이외에도 민주당이 만약 분열하게 될 경우 일정 세력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고, 이수성 전총리, 그리고 김종필- 김윤환같은 구정치세력도 지원세력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3신당의 파괴력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아직 가변적이지만, 최소한 대선의 3개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민주당의 경선에서 누가 후보로 선출되느냐 또한 대선구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이인제, 노무현 고문 가운데 누가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최소한 이회창- 민주당 후보- 제3신당 후보간의 3자 대결구도가 예상되며, 이는 이번 대선이 예측불허의 대결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다만 이인제- 노무현 고문 가운데 누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3자 대결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대선구도는 백지상태에서부터 다시 그려진다고 보면 아마 맞을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대선은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싱겁게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을 기점으로 정치판의 ≪그림≫ 자체가 다시 그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권의 ≪빅뱅≫을 어떻게 해야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은 대부분 담합과 흥정으로 점철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기득권질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치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변화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될 정치권 격변의 와중에서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다.

유창선 기자
2002/03/08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내분, 위기의 이회창

≪심각한 위기다. 이회창 총재가 일본 방문 이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당이 깨질 수 있다.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다.≫

11일 개혁성향 한나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상당수 원내 의원들과 원외 지구당위원장들도 당의 분열사태에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내일(12일) ≪미래연대≫ 소속 원내외 위원장들이 모여 당의 내분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성헌 의원(미래연대 공동대표)이 중심이 돼 열리는 이번 긴급모임에서는 오는 13일 귀국하는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한 건의사항들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 · 홍사덕, ≪이회창 총재는 퇴진하라≫



한편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가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홍사덕 의원도 11일 이회창 총재의 당무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의원의 탈당에 이어 김덕룡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재와 홍 의원이 이 총재의 퇴진을 거론함으로써 당 내분 사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사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총재의 당무 퇴진 △최병렬 부총재의 총재권한대행 임명 △집단지도체제 즉각 도입 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우리 당의 분열이 계속되면서 집권 가능성이 심각하게 손상받고 있다≫며 ≪통합과 화합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 ≪박근혜 부총재가 요구한 집단지도체제를 즉각 도입해 박 부총재 복당의 길을 트고, 우려되는 추가 탈당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일을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재가 당무일선에서 물러나 사실상의 수석부총재인 최 부총재가 총재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정치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탈당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치지도 않고 내버리는 사람은 없다.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당내투쟁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이부영 부총재는 지난 9일 이회창 총재를 독대한 자리에서 ≪당이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만큼 책임을 지고 총재단이 총사퇴하고 ≪구당(救黨)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재는 또 △서울시장 경선문제 원점에서 다시 논의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후보) 경선 실시 등을 요구하고,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 자신도 부총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회창 진영≫으로 돌아섰다는 이부영 부총재와 홍사덕 의원의 ≪이 총재 퇴진≫ 주장은 박근혜 의원의 탈당과 김덕룡 부총재의 탈당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균열사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김덕룡과의 동반탈당 쉽지 않을 듯, 김용갑 ≪정권창출훼방꾼 당 떠나≫



어제 10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청계산 등반에 나선 김덕룡 부총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야 힘이 된다≫고 밝혀 한나라당 탈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창당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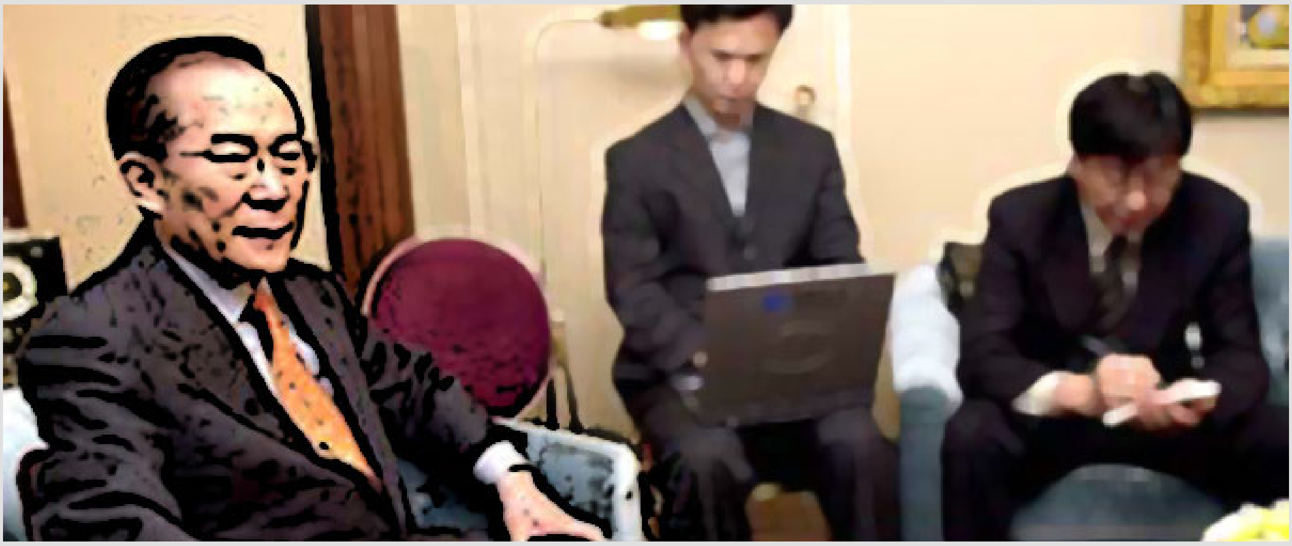
그는 이번주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재가 일본 방문 이후 김 부총재와 회동할 예정이어서 그 회동의 성과에 따라 탈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덕룡 의원과의 동반탈당이 점쳐지고 있는 ≪김덕룡계≫ 일부 의원들은 ≪탈당하지 않는다≫ 또는 ≪아직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 부총재가 민주계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와 접촉한 인사들은 거의 모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동반탈당≫이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다.

한편 ≪원조보수≫를 자칭하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덕룡 의원 등을 향해 11일 ≪정권 창출 훼방꾼은 빨리 당을 떠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박근혜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



이후, 일부 의원들의 도미노식 탈당 위협으로 인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기존 정당 질서를 뒤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좇는 철새 정치인의 전형에 불과하고, 정치 모리배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정권 창출을 훼방하고 재를 뿌리는 정치꾼들은 더 이상 당을 흔들지 말고 차라리 하루 빨리 당을 떠나는 것이 옳다≫며 ≪이 총재 역시 정치꾼들의 위협에 끌려 다니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의원 탈당, 김덕룡 의원 탈당 시사, 이부영 부총재의 총재단 사퇴요구, 홍사덕 의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등록 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내분사태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당의 내홍에 대한 이 총재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총재가 일본 방문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덕룡 부총재 등 비주류측의 ≪5월 전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 ≪당론이 이미 확정됐고, 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만큼 우리는 그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고, 홍사덕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등록 포기에 대해서도 ≪9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만큼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의원의 방치에 이어 김덕룡 부총재와 홍사덕 의원도 버리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측근의 문제, 13일 귀국해 어떤 수습책 내놓을지 주목

한나라당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이회창 대세론이 2년간 순조롭게 확산돼 왔는데 ≪큰 암초≫가 등장했다≫며 ≪이 총재의 호화빌라문제뿐만 아니라 당내외의 결속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내분의 원인을 ≪측근들의 문제≫로 보았다.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빌미를 제공한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 총재는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전향적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의 측근들이 문제다.≫

심지어 한 개혁파 의원은 ≪지금 총재 주변은 ≪민정계 귀족≫이 장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비주류측이 자신의 존재가치도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 운영이 소수 실세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며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내용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이 총재의 포용력 부족, 일부 실세 측근들의 당 운영 독점 등이 한나라당을 내분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병렬 부총재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비공식 라인 문제를 비판했다.

≪우리 당에는 공식, 비공식 라인이 함께 있는 형국이며 비공식 라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같은 심리를 느끼고 있어 당 단합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총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가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 ≪한나라당의 내부 빅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내분사태는 필연적 결과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완전히 분열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 개성이 강해 한지붕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 파괴력도 갖기 힘들다. 언론이 너무 부풀려서 장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개혁신당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언론이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다. 오늘 JP가 ≪박근혜 의원의 개혁신당은 좀 걱정스럽다≫는 발언을 했다. 벌써 신당의 한 축이 비끄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YS도 결심이 아직 안섰다. 오히려 이회창 총재가 대안을 만들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조기에 총재권한대행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

김만제 의원은 ≪이 총재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총재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바로는 힘들겠지만 5월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총재직을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다시 당이 추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하튼 한나라당이 ≪내부 빅뱅≫으로 가느냐 ≪내부 수습≫으로 가느냐는 결국 이회창 총재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일본 방문중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지 않겠냐≫며 ≪일본 방문 후에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의 분열이라는 ≪내우≫(內憂)와 신당 창당이라는 ≪외환≫(外患)을 방치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다. 이 총재가 오는 13일 귀국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구영식 최경준 기자
2002/03/11 오마이뉴스

김원웅 의원, ≪이회창 후보 안된다≫



한나라당의 내분사태에 대한 이회창 총재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절대 이 총재가 또 다시 당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회창 대세론은 이미 무너졌다≫며 ≪지난 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에 실패한 것은 한나라당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후보교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이회창 총재는 비민주적 지도자, 협량한 포용력, 민족관·역사관 의식 결여, 정치인으로서의 고뇌의 결여 등 문제가 많다≫며 ≪본선에서 제기될 온갖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걸러내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총재의 방일전 총재단회의에서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무조건 단결하자고 했는데 이는 집권을 포기하자는 것≫라며 ≪현재 총재단회의는 더 이상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측근 얘기는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회창 총재 자신의 독선적 리더십이 문제≫라며 ≪당의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인적쇄신 대상에 이회창 총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김덕룡 의원 탈당 시사와 관련 ≪이인제 혼자 탈당했다면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 모든 경선주자들을 다 내보낸 상황에서 이인제의 경선불복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김덕룡 의원을 탈당으로 몰아가는 이회창 총재의 리더십이 현 당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밤 개혁파 의원 5~6명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에도 국회 정치개혁모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는 ≪모인 의원들이 이회창 총재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러나 아직은 때가 좋지 않아 함께 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날 오후 4시 김덕룡 의원을 만나 당에 남아서 대선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합류하자고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경준 기자
2002/03/13 오마이뉴스

네티즌에게 찍힌 이회창

친미사대외교와 호화빌라 파동 며느리 하와이 원정출산의혹으로 비난 거세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친미사대적 행태와 최근의 호화빌라 문제,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등으로 네티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총재는 지난 1월말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북강경책을 주문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친미사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곧바로 터져 나온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김동성선수의 금박탈 사건·제이 레노의 망언 등으로 반미감정이 높아진 네티즌들에게는 찍힌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종로구 가회동에 장남과 함께 100평이 넘는 호화빌라 두채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의혹이 겹치면서 네티즌들과의 불화의 간극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의혹으로 이총재의 안티사이트는 물론 이총재의 공식사이트인(www.leenc.com)에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네티즌은 ≪총재님 어서 빨리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의 면적을 꼭 114평으로 늘려주세요 저도 그런 집에서 거실에 탁구대 놓고 살고 싶습니다.≫ 라며 이총재의 호화빌라생활을 비꼬았다.

박근혜 부총재의 탈당이후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내분과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젊은 네티즌들의 비판여론으로 이회창 총재의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김윤희기자 / 시민의 신문

미국의 핵공격계획에 대응조치 취한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년 3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국방성에 적어도 7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소형핵무기들을 제작할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월 8일 미국회에 제출된 국방성의 기밀보고서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데 대해 지적되였으며 핵무기가 사용될수 있는 3가지 류형의 상황도 언급되였다.

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서명한 이 보고서는 현재 미전략사령부가 핵전쟁계획을 준비하는데 리용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우리 행성과 인류를 핵참화에 몰아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 섰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또한 부쉬행정부의 등장을 전후하여 미국의 강경매파들속에서 랭전을 복귀하려는 호전적경향이 끊임없이 강화된것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였다는것을 립증해 준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세계적범위에서의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정치군사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는 반인륜적행위이다.

미국이 지난 세기 중엽 원자탄을 개발하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이미 패전한것이나 다름 없는 일본을 대상으로 그것을 처음 사용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 실시하여 온 랭전정책수행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핵공갈정책이였다는것은 잘 알려 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력대행정부들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여 저들의 핵정책을 표방함에 있어서 미국의 핵무기가 전쟁억제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오늘의 부쉬행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핵무기와 관련한 지난 시기의 거치장스러운 외교적공약에서 벗어나 저들의 일방적판단에 따라 특정한 나라들의 임의의 대상을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범죄적기도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핵공격대상인 7개 나라에 우리 공화국을 포함시킨데 대하여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직접 공공연하게 위협하여 나선 오늘의 정치군사적정세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노력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하여 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임의의 령토를 일본의 히로시마처럼 생각하고 핵공격을 가하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미국의 핵광신자들이 우리에게 핵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핵참화속에서의 미국의 파멸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3월 6일

럼스펠트미국방장관과 미국최고수뇌부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국방최고수뇌회의를 열어 반테러전 확전 등 세계전략차원의 전쟁전략수립 등을 집중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4일 럼스펠드국방장관과 9명의 육해공군 대장들이 국방최고수뇌부회동에서 사후 반테러전 확전에 대비한 세계전략차원의 전쟁수행과 본토방어를 위한 사령부발족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호전광들이 테러전확전을 위한 전쟁음모를 꾸민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인 것입니다.

부시가 말로는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느니 북미대화를 원한다느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군부우두머리들이 전쟁수행을 위한 이같은 모의를 벌인 것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지 2월 22일자에 따르면 존 볼튼미국무부차관은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 카터행정부의 선언을 오류라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느니 부시행정부는 무고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느니 뭐니하며 떠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은 비핵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 3월 1일자에 따르면 미국은 부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00명의 관리로 구성된 예비정부를 만들어 워싱턴 외곽에서 비밀리에 가동중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예비정부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 대표자들이 파견돼 가족과 떨어진채 동부해안지대의 비밀장소에서 지하생활을 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고 정부소식통은 이는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걸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 따로따로 진행하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수만명에 달하는 미침략군과 첨단전쟁장비들을 끌고 들어와 주한미군과 국군 등과 합동해 육지와 공중, 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소동을 벌이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가 한국에 대한 전쟁행각을 단행한후 벌어지는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침전쟁,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비밀예비정부 가동중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9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밝힌데 따르면 9.11사건이후 미국은 약 100명의 관리로 구성된 예비정부를 만들어서 워싱턴 외곽에서 비밀리에 가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비정부 관리들은 동부해안지대의 비밀장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떨어진채 지하생활을 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세상에 처음있는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예비로 하나 더 두고 있다는 것도 기막힌 일이거니와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를 비밀리에 땅굴속에 두었다는 자체도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있어보지 못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은 저들이 저지른 죄로 해서 산생된 모든 공포증의 당연한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혼란의 근거는 모두 미국이 조장하고 초래한 것이며 직접적인 개입으로 산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추겨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자행케하고 반정부적인국제테러분자들과 집단들에 자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레나다와 파나마, 이라크와 유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로해서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공격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 미대사관들에 대한 연이은 폭탄공격과 미국 함선들에 대한 자폭공격,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9.11기습사건 등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정부는 물론 미국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불안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치루고 있는 반정부인사색출과 2차 기습공격, 폭격 등으로 공항들과 항만들에 대한 검문검색소동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세상에 없는 땅굴 예비정부를 비밀리에 가동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포증의 산물입니다. 죄를 지은 자의 피해망상증을 연상케하는 가련한 몰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죄를 짓지 않고 떳떳히 처신했더라면 국제적 미움을 받을 것도 없고 예비정부라는 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유일 초대국의 체면도 잃고 세상에 없는 희비극을 연출할 정도라면 죄 지은 자의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땅굴속에 예비정부를 숨겨둔다고해서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미국이 저들의 죄가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용서를 빌지 않는 한 세계적인 공격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세상에 없는 땅굴정부를 만들어놓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그대로 땅속에 묻혀 버리는 편이 더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실전사용가능한 핵무기 추진

LA 타임스 보도

MAD는 냉전시대 미.소 핵전략의 핵심개념이다. 가공할 파괴력의 핵탄두를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탓에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다. 반핵론자 입장에서는 그 이름만큼이나 ≪정신나간(MAD)≫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지구 전체의 공멸이 불을 보듯 뻔한데 핵전면전을 일으킬 미치광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9.11 이후 미국의 이러한 핵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십 명에 불과한 테러리스트들이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펜타곤을 타격하는데 일만여 개에 이르는 미국의 핵탄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워낙 가공스러웠기에 역설적으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잠입해 들어오는 테러범들에게는 전혀 억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미 조야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미 국방부 산하 연구단체인 ≪국립공공정책연구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은 요새화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정밀유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소형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목표물로 생화학무기의 지하생산기지나 테러범의 은신요새 등을 들고 있다는 것.

최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이란과 함께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생산국이자 불량국가 중 하나로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전쟁억지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명백하게 사용할 의도를 가진 핵무기를 북한에도 겨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확인이라도 하듯 9일자 LA타임스는 미 국방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 부시행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 전술핵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와이어드≫에 따르면 지난 여름 존 워너와 웨인 앨러드 상원의원은 5킬로톤 이하의 핵탄두 생산을 금한 지난 1994년의 의회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제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에너지부가 저강도 핵무기의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는 명령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민경진 기자
2002/03/09 오마이뉴스

부시, 핵사용 준비 지시

LA 타임스, 미 행정부 ≪핵 태세 검토≫ 보고서 보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초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해 한반도에 긴장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남한 침략시 핵무기 사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A 타임스≫는 9일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군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일정한 전장 상황에서 사용할 파괴력이 낮은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보고서에서 이 7개국에 핵무기 사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 신문은 국방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미 관리들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대한 핵무기 공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왔음을 시인했지만 이번처럼 잠재적 타깃(표적)국가들의 공식 명단이 드러나기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방부가 아랍-이스라엘 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북한의 남한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라크의 대 이스라엘 및 다른 주변국 공격에서도 핵무기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핵무기들이 △비핵공격에 견딜 수 있는 (깊은 터널과 동굴 등과 같은) 목표물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시 보복 △불시의 군사사태 3가지 유형의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리처드 맥그로 국방부 대변인은 ≪LA 타임스≫의 국방분석가 겸 칼럼니스트 윌리엄 아킨이 입수한 보고서에 대해 이 문서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논평하길 거절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새 보고서는 현재 미 전략사령부가 핵전쟁계획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강경파들은 그 동안 핵무기들의 파괴력이 잠재적 적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시켜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 중 ≪불시의 군사사태≫는 9·11테러 이후 생화학 무기의 위협뿐 아니라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들이 미지의 무기를 갑자기 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들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타깃≫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최소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다는 ≪LA 타임스≫ 보도를 보고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당국은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에 대한, 그 어떤 나라의 핵무기 사용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특히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준 기자
2002/03/10 오마이뉴스

부시행정부 대북 핵전략의 실체

한반도 군사 충돌시, ≪핵전쟁≫ 위험 현실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적어도 7개국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위험한≫ 핵전략은,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미 국방부 및 에너지부가 1월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보고서 가운데, 56페이지에 달하는 ≪비밀문서≫를 입수해 9일 폭로한 것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을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고 이들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벙커 등 특정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소형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달부터 연구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핵실험 재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보도 다음날, 미국의 양대 유력지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를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관련 내용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핵공포 시대의 도래

미소간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인류 사회는 적어도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200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전에 핵전쟁의 공포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부시 행정부 ≪발(發)≫ 위협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가는 물론이고, 북한 등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핵전략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를 군사계획의 필수요소로 보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사용환경 조건을 분명히 하고는, 미 전략사령부를 통해 구체적인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하시설 등 비핵공격에 견딜 수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시의 보복 △예상치 못한 군사적 상황 등으로 꼽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 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을 ≪즉각적이고 잠재적, 예기치 않은 돌발 상태가 가능한 나라≫라면서 특히 북한과 이라크는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의 대상≫이라고 NPR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NPR 보고서가 1월초에 의회에 전달되고, 1월말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의 확전 대상에 삼고 있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핵전략은 전임 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모호한≫ 형태로나마 유지해왔다.

즉,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전략은 러시아, 중국 등 핵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의 공격 및 생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해서는 핵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삼아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조차 팽개치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물론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비핵≫공격에 대해서도 ≪핵≫보복을 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핵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 핵전략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삼고 있는 중국 및 자의적인 잣대로 지목한 ≪악의 축≫ 국가들에게 공격적인 핵전략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 국가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핵공격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모호한 형태로 지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 ≪핵우산≫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만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최첨단 무기체계의 판매 문제가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점에서 9.11 테러 이후 숨고르기에 드러난 중국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제네바 합의 위반, 북한의 대응은?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핵전략을 보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공언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안팎에서 거세게 반발해온 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MD를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경우, 무고한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는 핵공격을 할 필요가 그 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NPR 비밀 문서의 폭로를 통해 이조차도

≪공언(空言)≫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인준을 계속 거부하면서 핵실험 재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고, 감축할 예정인 전략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할 것임을 밝혀 미국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또한 우발적인 핵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경보 즉시 발사≫ 시스템의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핵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서 한걸음 더나가 북한, 이라크 등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소형 핵탄두의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핵전략 채택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에 대해 더욱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핵전략 채택으로 ≪파국≫을 맞게 될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핵공격 목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올려놓은 것은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 동결≫이라는 제네바 합의를 준수할 의무 및 동기가 더욱 약해지게 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범주화한 핵공격 조건에 거의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다량의 화학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제조 능력 및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핵공격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하요새화한 국가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 파괴 핵무기 사용의 우선적인 대상 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유사시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하시설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비롯한 지하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지하시설 파괴 무기 개발 및 보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선제공격을 통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대확산≫ 전략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다급해진 위기 예방책

앞에서 언급한 ≪소극적 안전보장≫에는 핵무기 사용과 함께 사용 ≪위협≫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핵무기 ≪위협≫만으로도 상대방의 핵개발 의지를 부추기고 이에 따라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 등에 핵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백한 위반이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욱식 기자
2002/03/10 오마이뉴스

미국 핵정책 내외 비판 빗발

≪세계파멸 의도≫ ≪생각 못할 일≫ 안팎 비판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10일(현지시각) ≪지금의 세상은 예기치 않은 위협과 불량국가들로 가득찬 만큼 보다 광범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핵태세검토 보고서≫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강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미국 내 비판=비판론자들은 특히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벙커 등 지하시설물을 공격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핵전쟁 억제 구실에 머물렀던 핵무기가 앞으로는 재래식 공격을 가하는 적에 맞서기 위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핵정책으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얻는 게 있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즉각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보고서의 핵무기를 설계・실험 및 실전배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경우 군사적 이익을 얻는 데는 몇 년이 걸려야 하지만 외교적 비난은 즉각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각국 반응=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크게 ≪유보≫와 ≪우려・비판≫으로 나눠지고 있다.

핵공격 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리비아의 알리 아브드 알살람 알투티키 아프리카담당 장관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세계를 파괴하려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영국 외무부와 안토니오 마르티노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일상적인 군사계획으로 결론지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변인은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보스니아 외무장관에게 ≪미국이 최악의 전쟁에 연루돼 있으며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으나 역사는 누가 대화를 증진시키고 폭력을 불렀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바르방송≫이 전했다. 이란 ≪테헤란타임스≫는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패권 장악 및 지배를 위해 세계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국방부의 국제협력 책임자를 지냈던 레오니드 이바쇼프는 ≪인테르팍스통신≫에 ≪러시아 정치인들은 미국이 모스크바의 번영을 원한다는 환상을 버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윤국한 특파원
2002/03/11 인터넷 한겨레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20호)

전쟁미치광이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회창역도는 미국호전분자들과 결탁하여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극악한 호전광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자주평화통일의 기운이 고양되자 이회창역도는 2000년 6월 18일 북에 대량살상무기와 핵, 미사일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지껄였다.

그 며칠 후에는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시켰다.

역도는 그해 12월 15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앞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니 ≪적화통일≫이니 뭐니 하며 북에 대한 ≪주적론≫을 떠들어대였다.

2001년에는 정초부터 ≪주적론≫을 연발하면서 북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떠들며 대북적대감정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였다.

그런가하면 그해 3월 12일에는 ≪무력도발포기≫는 북이 말로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북의 군사력감축과 휴전선일대의 상용무기후방배치 등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방적 양보불가론≫, ≪북한불변론≫, ≪과거사죄론≫을 들고나오며 첨예한 남북대결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6월 한달동안에는 이북 무역선의 통과와 관련하여 강력대응과 무력사용을 선동하며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친미사대역적 이회창은 올해 1월 국내에서의 반북전쟁소동으로도 성이 안차 미국을 돌아치며 남북관계진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이북을 걸고들며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애걸하였다.

심지어 ≪재래식무기축감≫이니,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이니, ≪핵개발대비≫니 뭐니 지껄여대며 통일후 ≪미군영구주둔≫을 구걸하는 극악한 매국망발까지 줴쳐대였다.

역도는 지난 2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이북은 ≪미사일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느니 하고 지껄여대였다.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비호하며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조작하는 이회창역도의 반북대결책동은 현재 진행중인 친일매국행각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반복재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내외호전광들인 부시와 이회창의 전쟁대결책동으로 인하여 경색국면을 넘어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엄중한 상황이 되였다.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호전광 부시의 특등사냥개가 되어 남북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돌아가고 있는 이회창역도야말로 권력욕에 환장한 전쟁미치광이이다.

이회창역도의 그간 호전행각으로 볼 때, 이런 호전분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6.15공동선언은 파기되고 결국 조국반도는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오늘 대권에 피눈이 되어 민족멸살의 전쟁열을 고취하는 극악한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는 것만큼 구국운동에서 시급한 문제는 없다.

반통일호전광이고 친미사대매국노이며 부정부패개쪽인 이회창역도는 반드시 민중과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열혈청년투사들은 국민대중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반미투쟁과 함께 극악한 호전분자 이회창역도를 퇴출시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1(2002)년 3월 13일
서울

≪아리랑≫대공연 준비훈련장을 찾아서

평양특파원 조국진 / 구국전선 제471호, 주체91년 3월 11일

요즘 민중의 관심과 기대는 이북의 아리랑축제에 쏠리고 있다. 멀지 않아 대걸작으로 완성될 황홀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그 준비상황을 전하고 싶어 나는 취재길에 올랐다.

들끓는 축제분위기

지난 2월 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로 들끓는 5월1일경기장을 찾았다. 대동강기슭의 능라도에 위치한 5월1일경기장은 한폭의 명화처럼 아름다웠다. 마치 거대한 낙하산을 방불케 했다.

≪참 명당자리입니다. 풍치수려한 모란봉을 감돌아 대동강이 흐르고… 정말 절경입니다.≫ 내가 감탄을 연발하자 ≪피바다≫가극단 안무가 전씨는 나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산천도 절경이지만 여기에 펼쳐 질 ≪아리랑≫대공연은 아름다움의 극치로 세계를 놀래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국도처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준비위원회 앞으로 공연내용과 공연형식, 공연날짜와 공연회수 등을 묻는 전화들이 쉴새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출연자들의 훈련성과를 기대하고 고무하는 편지들이 하루에도 수백통씩 온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과 학교들에서는 이름있는 연예인들과 재능있는 학생들을 올려 보낸데 뒷이어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훈련에 전심할 수 있도록 온갖 지성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마음에 떠받들려 출연자들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훈련쉴참에 만난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여대생은 ≪…정말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가 떠받들지 … 우리 민족을 제일로 사랑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뜻을 받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니 추워도 추운 줄 모르겠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활짝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햇볕에 타고 추위에 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느라니 콧마루가 찡해 옴을 금할 수 없었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큰 법이요, 골이 깊으면 메아리도 큰 법이다.

신비로운 최대걸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이북에만 있는 특색있는 종목이다. 이북은 예술에서 뿐아니라 집단체조에서도 세계으뜸으로 꼽힌다. 지난 시기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은 세계 고위급 정치인들과 명망높은 연예인, 민중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얼마나 놀래웠으면 외국신문들이 ≪환상예술≫이라고 앞다투어 격찬했겠는가.

이토록 훌륭한 문예전통과 세계적인 걸작을 가지고 있는 이북에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종전의 것과 내용과 규모, 형식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최대걸작이라고 한다. 부언하건데 민족적 색채가 짙고 민족대단합의 장이 될 이 축제를 보지 않고서는 21세기의 문명을 맛보았다고 말 할 수 없다.

영화화면처럼 흘러가는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신비로운 조화,



민족적 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감이 강한 것으로 하여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음악과 우아하고 세련된 무용, 황홀하게 무대를 장식하는 특대형영사화면들과 레이저조명효과 등은 나의 온 넋을 사로잡고 매혹시켰다. 속담에 백번 듣기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후회란 때늦은 법이다.

아리랑이여 울리어 가라

≪아리랑≫,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앞선다. 정든 산천을 뒤에 남기고 살길 찾아 타향만리를 떠나며 부르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

망국을 한탄하며 살길을 찾아 부평초마냥 떠돌며 부르던 노래,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며 고국산천 하직한 이 얼마며 죽어서도 넋이라도 고국산천에 묻히길 원한 이는 또 그 얼마이더냐. 오늘 이북민중은 어젯날의 눈물젖은 아리랑이 아니라 행복의 아리랑, 영광과 번영의 아리랑,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을 소리높이 구가하고 있다.

우리 겨레는 위인을 모시어 세기의 하늘가에 울려가는 번영의 아리랑에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날 외세의 압제밑에서 당한 이별의 서러움, 약소민족의 쌓이고 쌓인 서러움과 한을 털어버리고 민족자주통일과 번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계정상에 우뚝 선 단일민족의 억센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지금 평양은 모든 준비를 원만히 갖추고 있다. 평양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다채로운 음악무용, 오페라 공연들이 준비되고 있다. 원하신다면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 그 어디나 갈 수 있다. 또한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관람과 휴식에 필요한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꾸려져 있다.

나는 온 민족과 세계의 절찬속에 막을 올릴 그날을 그려보며 5월1일 경기장을 떠났다.



미군기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다

LPP 후속회담 앞두고 미군기지 반환 목소리 커져

15일 있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회담을 앞두고 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가) 주최로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이전비용 부담 반대, 미군기지 반환 촉구 수도권 연대집회≫가 노동자, 시민, 학생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산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에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캘리포니아 주로 써서 보낸다≫고 말한 뒤 ≪우리땅을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며 개탄했다.

또, 이규재 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범죄나 환경문제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며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 신자유주의 경제침탈 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군반대≫가 아닌 ≪미군 축출≫을 외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 송파, 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각 지역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에서 의정부 범시민대책위원회 배승용 집행위원장은 ≪의정부 전체 땅의 10분의 1일이 미군 공여지≫라며 ≪의정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주변의 범죄와 퇴폐문화등으로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배승용 집행위원장은 ≪의정부에 건설하려는 24만평 규모의 대규모 미군기지를 막기위해 의정부 동부역 광장에서의 천막농성, 미군기지 반대 주민투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활동내용을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송파와 수원의 주민들도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보고해 참가자들의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주최측은 결의문을 통해 ≪쓸모없는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 오산, 평택, 포항 등의 도심지 땅 75만평을 추가공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LPP의 내용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주한미군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부당하고 현실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영구주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뒤 그 근거로 ≪터무니없는 이전비용 전가≫, ≪용산미군기지내 고가도로 신축계획 발표≫등을 들었다.

주최측은 △LPP 후속회담에서 미군기지 반환일정 명문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용산가족공원까지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2002/03/09 통일뉴스

≪금싸라기 같은 도심 땅 내놓으라고?≫

LPP관련 미대사관 1인시위 시작돼

한 · 미 당국이 15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자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1일부터 미대사관 앞에서는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 주최로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미군기지 반환 일정 명문화, 미군기지 반환 촉구 1인 릴레이 시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1인시위는 회담이 열리는 15일까지 각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15일로 예정된 후속 회담이 이달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이번에 열릴 LPP회담은 작년 11월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미군기지 이전, 신설, 확장에 관한 ≪의향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의 미군기지 4천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 땅 75만평을 새로 공여하기로 하고, 반환을 요구했던 매향리, 스토리 사격장 등의 미군기지가 제외된 의향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을 비롯한 용산, 송파, 의정부, 부평, 평택, 수원, 성남등의 수도권 지역의 미군기지 대책위가 모여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가)을 구성하고 집회와 1인시위, 국방부장관 면담 등의 활동을 예정해놓고 있어 LPP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3/11 통일뉴스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7일~9일

지금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민족대단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반통일적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어서 민족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서 사시는 지식인 김인철씨의 글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조선일보는 민간법정에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까마귀 하루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밖에 없다고 했다. 민족반역지 조선일보에 적당맞춤한 말이라 하겠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이북에서 준비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했다. 반북과 반통일의 구시대적이며 반민족적인 대결고취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조선일보의 생리를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입은 비뚫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랬다고 진실을 파렴치하게 왜곡하는 이 매문지의 추태에 다시한번 혐오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의 정치예술이니 하는 악의에 찬 표현을 써가며 비방중상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실판별능력을 잃어버린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북의 ≪아리랑≫공연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만해도 동방의 은둔국에서 사는 약소민족으로 세계의 관심밖에 동떨어져 있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에는이북의 존엄과 더불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선망의 눈길을 보내는 강성민족으로 자랑떨치고 있다.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도 한손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이북의 강대성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다.

조선일보도 사회의 눈과 귀임을 자처하는 언론지일진대 평양의 한마디에 세계정치기상도가 달라지고 역학관계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을 못볼리 없고 못들을리 없을 것이다.

불우한 운명의 하소연인 듯한 아리랑노래를 숙명으로 여기며 불러오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이북의 위풍당당한 자태에서 민족의 무궁번영을 내다보며 행복의 아리랑을 소리높이 부르고 있다. 특히 천지개벽의 전변이 창조되고 있는 이북에서 그 노래소리는 더더욱 높다.

이북의 아리랑공연은 바로 이 엄연한 역사의 진실을 예술화한 것이다. 현실이 위대하여 그 반영인 예술도 위대하며 때문에 지구촌 각지에서 이북의 아리랑공연참관요청을 저마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북이 구태여 홍보활동을 펴지 않아도 공연관람을 위해 세인들이 구름처럼 평양으로 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이것이 어떻게 관광상품의 개발이 되며 더욱이 파시즘의 정치예술로 된단 말인가.

만일 조선일보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들은 죄다 파시스트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현대판 매카시즘적 발상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반북적대의식으로 해 흰 것도 검게 보이는 색맹환자, 초보적인 판단력도 없어진 치매증환자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과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은 극악한 민족반역지 조선일보의 독설에 피끓는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헐뜯으려해도 맨발로 바위차기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 수 없듯이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오도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이북 비방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멸의 함정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족반역지 조선일보는 우리 민중과 전세계 진보적 민중의 분노한 철퇴에 묵사발이 되지 않으려거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가 저지른 반민족반통일 죄값을 치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겁니다. 우리 겨레는 반통일에 거품을 물고 나선 조선일보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친미사대보수 박명환 규탄대회



지난 2월 27일, 이른바 ≪ 보수출정식≫ 에서 국회의원, 그것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신분의 비중있는 정치인이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서슴없이 퍼부운 사건을 가지고 한나라당 박명환(마포갑)의원 사무실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습니다.

좀 급하게 제기가 되어서 대중적인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함께 투쟁해왔던 지역의 단위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부지역 노점상 형님들 아버님들, 서부총련 학생동지들, 서부청년회(준)의 청년들, 민주노동당 마포갑 지구당, 몇몇분의 마포시민들과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집행간부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득종 서부노련 지역장님(서부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규탄발언,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의 아리랑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의지를, 통일연대에서 규탄발언을 각각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득종 지역장님께서는 ≪지금 통일과 화해로 나아가는 시기에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올해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 라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득종 지역장님의 항의서한 낭독으로 집회를 마쳤으며 실천투쟁으로 마포갑 구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런 자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도 앞으로 6.15공동선언 실현으로 전개될 국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의 그 분노를 잊지말고 견결하게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직접 대중속으로 들어가서 놈들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놓는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03/10
서울서부지역통일연대



파시스트들의 광란장.
지난 2월 27일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 김용갑의 후원회라는 자리에 갖은 반통일역적들이 모여들어 망발들을 쏟아내었다.
박명환은 이날 앞장서서 이북의 지도자를 모독하고 방북인사들을 모함하는 망언을 하였다.

구속학우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6일~8일



공안당국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연일 연행, 구속하고 있어 각계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만도 공안당국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 이 땅에 기어든 부시의 행각을 반대하여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에 참가했던 한총련소속 대학생들과 반미반부시투쟁을 힘있게 벌인 청년학생들을 수많이 연행,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1일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이 밝힌데 따르면 공안당국은 지난해에만도 무려 907명의 애국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다고 합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만행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청년학생들의 기상으로 보나 용납못할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통일기운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 조국통일은 더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생생한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청년학생들이 그 요구에 화답하여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투쟁의 앞장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과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발표한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반미반부시투쟁을 벌이는 등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벌인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도 한총련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견제하고 화해를 바라는 겨레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년학생들의 이같은 투쟁은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으로써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탄압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수많은 애국학생들을 철창속에 가둬놓고 온갖 박해를 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연일 구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을 위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수많은 학우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 참기 어려운 옥중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의에 투철하고 투쟁에서 용맹한 우리 청년학생들이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 부당하게 구속된 학우들을 구출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하여 구속된 학우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분기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학생들은 의로운 학생들을 철창속에 가둬놓고 탄압하는 공안당국의 반시대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규탄하는 대국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대자보게시, 유인물배포 등을 통해 공안당국의 반시대적인 작태와 구속학우탄압행위를 각계 민중속에 알려주기 위한 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공안당국의 범죄적 만행을 똑똑히 알고 구속학생석방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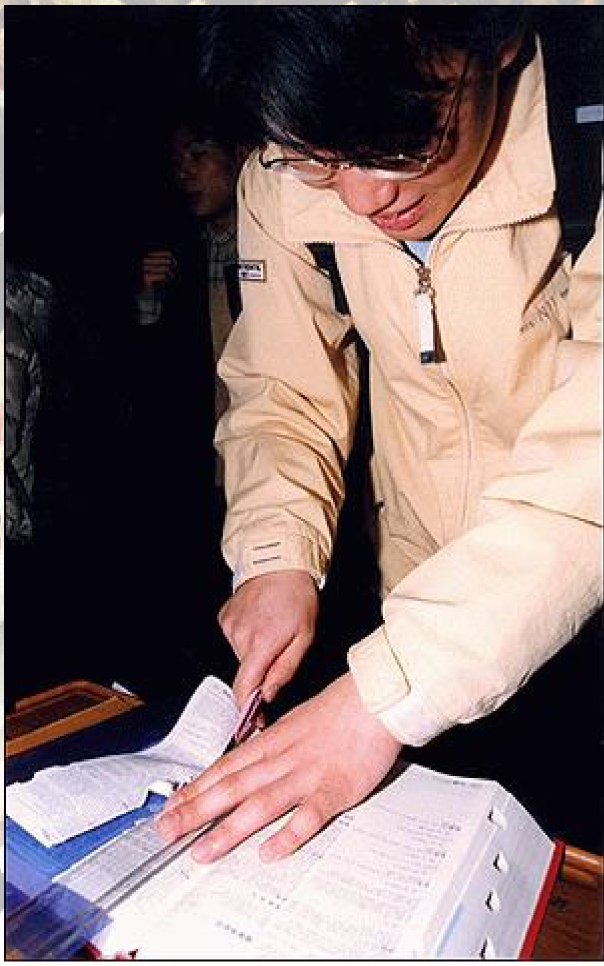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실천투쟁도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구속학우석방, 공안탄압분쇄, 수배해제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와 집회 등 여러가지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실천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정의와 애국에 투철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구속과 처형소동은 절대로 멈춰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곧 구속학우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면서 이 투쟁을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착시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에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들에 강한 타격을 안겨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은 투쟁에서 더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전국민중연대와 전국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투쟁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오늘의 격동된 시기에 걸맞게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각계 민중과 함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공안당국의 학생탄압선풍을 짓부수고 기어이 구속된 학우들을 모두 구원하여 백만학도의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고대법대학생회, 이색시위, 《법전을 찢어라》



신입생에게 《법전》배포하며 《국가보안법》항목 찢기 행사

지난 7일, 8일 양일간 고려대 법대 학생회 주최로 법학과 1층 로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이색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색 시위는 고려대 법대 학생회에서 공동 구매한 법전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며 쉬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항목이 담긴 부분을 찢어내는 행사이다.

이번 이색 시위에 참가한 이 모양은 《사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한 모군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써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 노진석 군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상징적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후 이자제한법 개정 운동 등 각종 법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헌 기자
2002/03/08 유뉴스

《단국대 조직사건》 악몽 되살아나나

김세중씨 등 2명 연행, 경찰 《조직사건 조사한다》

남북교류 분위기를 타고 한동안 잠잠했던 《조직사건》이 다시금 대학가에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8일(금) 단국대생 김세중(회계학과 95학번), 김규성(고분자공학과 93학번)씨가 오후 1시와 6시경 각각 집에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연행 당시 경찰은 가족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작년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 안은미(섬유공학과 96학번)씨는 《김세중씨는 작년 상대 학생회장을 지냈으나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수배된 사실이 없으며 김규성씨도 제작년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지낸 졸업생으로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다》며 조직사건 연계 의혹을 강하게 표시했다.

대책위는 이날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연행된 이들이 석방될때까지 학내 선전전과 검찰청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국대 총학생회장 조영수(행정학과 95)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리랑 등 대규모 남북교류와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줄서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김씨들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 지금은 이야기 하기 힘들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은 작년 5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산하 구국의 방송녹취 및 학습, 140여종의 이적유인물 배포》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단국대 황우정씨등 졸업생, 재학생 및 군인 등 7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구속된 7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11월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되었으며 강압, 불법수사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유상 기자
2002/03/09 유뉴스

한총련 합법화 위한 움직임 활발

최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31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준비모임(대표 권오헌, 이하 준비모임)≫이 구성이 그것이다.

93년 출범이래 1254명(2001년 8월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 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900여 명이 구속됐다. 96년 연세대 사태와 97년 출범식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이석 씨, 이종권 씨 치사 사건은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해마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총학생회장)들을 어떤 행위적 근거도 없이 ≪이적 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를 적용해 수배와 구속이라는 굴레로 몰아세우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준비모임은 전국연합 등 민족민주진영, 전대협동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치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20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준비모임은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낡은 공안기관의 잣대로 이적성을 운운하며 대학생들의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치적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강위원(31. 5기한총련 의장) 씨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운동노선이나 친북시비 때문에 정치적·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범위한 비판적 지성과의 연대를 통해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학생운동이 시대변화에 맞는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총련도 왜소한 조직논리보다는 이전 운동을 성찰하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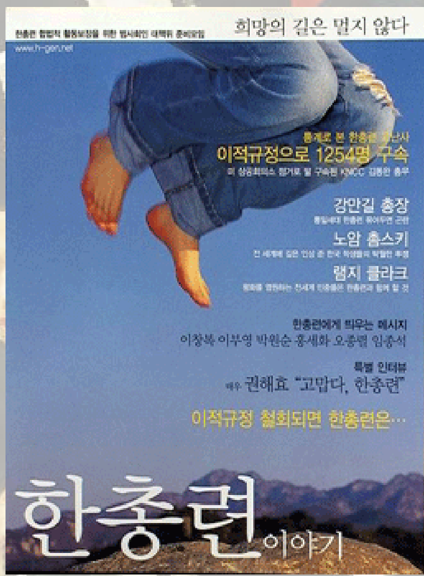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한총련 세대≫라는 홈페이지(http://www.h-gen.net)를 개설해 이적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한총련에 대한 아픈 소리도 담아내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 과정에 대한 부당함과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총련 이야기≫를 발간했으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낼 계획이다. 제소는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며 원고는 강위원 씨가 된다.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대책기구는 ≪한총련 대의원 구속·수배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한총련 이야기≫ 출판 기념식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일 준비모임이 발간한 ≪한총련 이야기≫는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피해 사례들을 짚어보는 글들의 묶음이다. 하지만 ≪이적단체 규정≫이란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왕따≫ 현상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한총련에 대한 따끔한 질책들이 녹아있다.

준비모임은 ≪한총련의 노선과 활동방식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진정 민주화된 사회라면, 기성세대와 지식인들이 학생운동의 긍정성과 역사성에 조금이라도 주목한다면 한총련에 덧씌워진 이적규정 문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발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한총련 이야기≫는 정치인, 변호사, 언론인들의 글을 통해 이적규정 과정과 언론의 96년 연세대 사태 등을 되짚고 이적단체 규정이 ≪한국판 주홍글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합법적인 기구이며 매년 구성원이 바뀐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강령까지 바꿨음에도 여전히 이적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의적 법해석의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없이도 이적규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인터뷰에서 송 의원은 ≪한총련 간부들을 직접 출석시켜 한총련이 과연 이적단체인지 아닌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총련 이야기≫는 이렇듯 97년 이후 겪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부영 의원, 정혁백 교수, 손석춘 한겨레 여론매체부장, 한양대 97학번 학생,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계층의 한총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 책에서 손석춘 부장은 ≪화석화된 언어로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모든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할 수 있다면 기득권을 버리듯 이름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총련 이야기≫는 이석 씨 치사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김호(97년 서총련 투쟁국장)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락치 논쟁에 앞서 진실한 반성이 필요했다≫고 고백시키고 있다. 그 동안 한총련이 조직논리를 앞세우며 경직된 사고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책에는 10기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 후 한총련,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10대 약속이 실려 있다.

강성관 기자
2002/03/11 오마이뉴스

발전소 매각, 알고 보면 ≪매국≫입니다



발전노조 조합원들 파업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서 빠져 나온 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엔가 머물며 파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6일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소 매각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5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면, 1개 사당 자산규모가 2조-4조원(5개사를 합계하면 총16조원)이나 됩니다. 재벌이라도 제 돈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전회사들은 국내독점재벌이나 외국의 에너지독점자본에게 인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발전소를 매각(민영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알고 보면 발전소를 거대 독점재벌과 외국의 에너지 재벌에게 매각하는 정책입니다.

1998년의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1017억원이고 1999년은 1조4679억원이며, 2000년에는 1조7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매년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는 우량공기업을 분할매각하여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나눠먹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알토란같은 국민재산을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헐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역사에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전의 경영진단반은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 한전의 구조개편 방안으로 우선 사업부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되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에 걸쳐 연구 결과 한전의 분할매각방안을 명백히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막연히 일반론적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이점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한전과 전력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발전소의 분할매각 방안이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토란 국민재산

자세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조사를 마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정반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매각 정책은 누구를 위한 분할매각입니까?

2001년 4월부터 이미 분할되어 있는 5개 발전회사방식은 전력산업기술이나 발전기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는 1개 발전회사당 석탄발전소 1-2개, 유류발전소 1-2개, 천연가스발전소 1-2개, 복합발전소나 양수발전소 1-2개씩 골고루 안배하여 분할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발전회사를 각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데는 효과적일지언정,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전기술의 발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술경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발전회사들이 모든 종류의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갖춰야 하고 또 모든 종류의 시설과 부품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기술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굳이 분할해야 한다면 석탄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끼리, 유류발전소는 유류발전소끼리, 또 천연가스(LNG)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끼리 묶어서 파는 것이 발전기술의 전문화를 위해서든, 부품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로 기술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는, 발전연료별로 연료가격의 차이 때문에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현상황에서 억지춘향식의 경쟁체제를 만드는데 급급하다보니, 각 발전회사에게 각 연료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력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현재와 같이 법인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기술경제의 효율이 파괴되게 됨으로 이런 방식은 피하는 대신, 같은 법인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업부별로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분할매각하는 기존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7월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전소 분할매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돈은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고(자본금 782억원), 대부분 차입금으로 발전소를 인수한 실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총 7710억원의 매각대금 중 매각대금의 64%인 총 4940억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혜성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LG칼텍스정유와 미국계 초국적 기업인 텍사코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LG파워측은 위 차입금의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나가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엘지파워는 지난해 12월 11일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에 1815억원의 지분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요금인상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 한전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보수율(1999년의 경우 4.7%)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최저 12-15%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바로 매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방요금 인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경기도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2001년 1월 난방비를 9.13% 올린 후, 4월에 또 다시 난방비를 26.8% 인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며 알토란같은 국민의 재산을 재벌과 외국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발전소 매각의 진짜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전소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민적 공개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매각 결정과정은 소수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분할매각이라는 정책결정을 해 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개최된 1-2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친 것 이외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국이 발주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결과에도 상반되게 막무가내로 발전소 분할매각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합의과정 없는 ≪매각≫

정부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발전소 분할매각은 일단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정·공익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거쳐서 마련된 구조개편방안을 공개하여 국민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대사인 발전소 매각은 일단 졸속으로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졸속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긴요합니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2002/03/07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후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낸다

대구경북지역 각 단체, ≪후보자 공개모집≫ ≪대책 기구 결성≫ 이어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등 지역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포항여성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민노총 포항시협의회≫ 등 포항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민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이 연대해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포항여성회 교육실에서 ≪지방자치 개혁과 참여를 위한 포항시민연대회의≫ (이하 자치참여연대) 발족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후보자 공개모집 (3월) △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 (4월)해 시민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참여연대는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지역 법조계, 학계 등 대표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대략 50여명 선에서 꾸려질 예정이다.

시민 후보를 내는 것과 함께 자치참여연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지역의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5대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선거전에는 ≪정치개혁과 주민자치를 위한 5만표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사이버선거 지원단을 공개모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개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시민의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향후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자치참여연대 이호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마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공약사항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선거에 관여했지만 이것이 해결되거나 정책에 반영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6월 지방선거만큼은 직접 시민후보를 내는 적극적인 후보전술을 사용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참여연대는 33개 포항지역 기초의원 지역구 중 대략 10여 군데 정도 자체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항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포항지역 외에도 지금까지 지역 시민단체인 ≪새대구경북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민회의는 오후 7시 시내 음식점에서 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출 △지역 제반사안에 관한 방향제시와 사업 확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추천하여, 대구지역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회의는 정기총회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결의문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인사를 지방선거 후보로 발굴, 추천하고 후보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 ≪이를 위해 2002년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승욱 기자
2002/03/12 오마이뉴스

노동계 지방선거 참여 본격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기로 하고 최근 후보자 공모작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두 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 지방선거에 조합원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후보단을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97년 대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실시하고 4.13 총선에서는 기존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단 무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 기존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후보단 공모와 관련해서는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되 별다른 이견의 소지가 없는 한 재선 도전 출마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구나 동일한 정당의 비례대표 출마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이나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최대 80~90명 정도의 조합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출마할 경우 정책개발 등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며 ≪최근 독자 세력화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추세인 만큼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2004년 총선에서는 독자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6월 지방선거에 조합원들을 출마시키기로 하고 최근 지역본부별로 후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무소속 또는 기존 정당 소속으로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는 달리 97년 대선이나 4.13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토록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논의중≫이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들을 출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기자
2002/03/13 오마이뉴스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6일~8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올들어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농과 한총련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운동단체들과 함께 2002년을 진보진영의 대단결로 자주민주통일의 희망의 해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했는데요.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운동에서의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라는데 관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금 관계당국이 노동운동권안에 쐐기를 박고 각계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발악하는 여건에서 노동자대중은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노동운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대연합이 왜 운동승리의 담보로 되는가 하는 건 지난 시기 여러 계기를 통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자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서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단결해서 운동으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역사가 가르치는 철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승리의 대전제는 단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계층, 더 나아가서 각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추진시켜 함께 뭉쳐 싸우는 것이 운동승리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옳은 문제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로부터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내로라해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잘 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사회각계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단결을 추진하는 것이 대중운동승리의 담보로 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케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연대연합을 강화하는건 오늘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현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날을 따라 폭력적이고 악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안당국은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검거선풍을 일으키며 노동운동지도부와 그 핵심들을 제거하려고 책동했습니다. 효성 울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유혈적인 탄압을 가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집권당국이 노동운동을 고립시켜 말살하려는 여건에서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투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운동이 각계층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다시말해서 권력과 자본이 합세해서 노동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해 나서고 있는 여건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투쟁에서 목적을 달성하자고 해도 노동자뿐만 아닌 각계 민주애국세력과 연대연합을 해서 자기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거죠.

김현규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운동에서 각계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부시의 방한저지투쟁에서도 마땅히 노동자가 주력으로 나서야 했지만 민중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있고 통일운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15 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의 기관차로 약동하는 우리 노동자계급이 각계 민중단체와 손을 잡고 호흡도 같이하고 발걸음도 맞춰야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시기 노동운동이 각계층의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서 투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힘차게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규 : 그에 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제 생각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대중이 지지하고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즉 노동운동은 자기 타산의 독자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천투쟁속에서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생존권쟁취를 비롯한 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운동승리의 담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주도세력으로 나설걸 요구하는 현실의 요청을 명심해야 할거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현실의 요청은 우리 노동자대중이 각계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 전반적인 대중운동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나갈걸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대중이 자기들의 생존권투쟁에만 집착하면서 우리 민중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쟁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조직력과 투쟁력, 결단성이 있는 노동자대중이 전반적 대중운동에 뛰어들어 각계층 운동단체들과 어깨겯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면 승리는 확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새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대중은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라는걸 다시금 명심하고 노동자호상간, 지역, 산별간, 노동운동단체간과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연합에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겠지만 노동운동에서도 승리는 연대연합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형제들은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 민주, 통일실현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봄철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미국의 식민지인 이 땅에 또 한차례의 봄이 왔는데요. 이 땅에서의 봄은 활기찬 새로운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투쟁의 계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50여년전 미국의 군사적 강점으로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식민지로 전락된 이 땅에는 정녕 우리 민중의 행복한 새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봄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봄이 있다면 그건 미국의 식민지강점을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투쟁의 봄뿐이였습니다.

사회자 : 지난해도 그러했고 올해도 이 땅에 투쟁의 봄을 불러온 우리 노동자대중인데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도세력인 우리 노동자대중은 매해 봄이 오면 먼저 투쟁의 불을 지펴 올렸고 한해의 전반적 대중운동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갔죠. 그럼 올해 봄철 투쟁도 잘 해내자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봐야하겠습니까.

김현규 : 우리 노동자대중이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무엇보다도 봄철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잘 알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올봄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변들과 사건들이 예상되는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유다른 봄이 아닙니까.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해입니다. 특히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망발을 하고 방한한 것으로해서 이 땅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또다시 대립과 분열의 냉전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이 땅에 대한 반통일영구분열책동에 추종해서 이회창과 조선일보와 같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보수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으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날로 가중되는 미제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책동으로 말미암아 이땅의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압박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규 :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반 사실들은 이 땅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과 그에 기생하여 더러운 정치적 야심과 더많은 부를 채우려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로해서 우리의 자주권과 민중생존권은 여지없이 유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봄철 투쟁을 어떻게 떼고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이 땅의 반동보수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올해 전반적 대중운동을 한걸음 크게 내딛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노동자대중의 봄철투쟁이 올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 전반적 대중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 되겠군요.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봄철 투쟁의 포문을 연 우리 노동자대중이 이 투쟁을 잘 해내야 각계 운동단체들과 민중이 배가된 승리의 신심을 굳건히 갖고 올해 대중운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그리고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자면 투쟁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몇푼의 임금인상이나 몇개의 일자리를 따내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는 투쟁으로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대중이 생존의 막바지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바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경제침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지 않는한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삶은 조금도 개선될수 없고 더욱 비참해 질 것입니다.

사회자 : 더욱이 이번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민족이 공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존권이요 뭐요 조차 논의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봄철 투쟁의 목표는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자대중은 이번 봄철투쟁을 통해서 민중생존권쟁취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하겠죠.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봄철 투쟁을 잘 하자면 정확한 투쟁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그를 실현하기 위한 결사의 각오를 안고 1300만의 노동자 모두가 투쟁의 마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 구호나 외치고 도중에 흐지부지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시기 일부 투쟁들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도중에 양보와 후퇴를 한다면 전반적인 올해 대중운동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건 물론이고 나아가서 노동자의 생존권, 우리 민중의 생사를 위협하는 미국의 침탈행위, 핵전쟁책동은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대중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봄철 반미자주화투쟁에 모두 동참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봄철 투쟁을 잘 해내는데서 이밖에도 노동운동단체간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강화의 중요성에 관해서 또 조직력과 지도력의 강화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1300만의 노동자대중은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찾는 봄철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로동신문 사설, 주체91년 3월 11일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뜻 깊은 태양절이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 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세차게 끓어 넘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식민지약소민족으로 버림 받던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자랑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혁명적명절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 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이 힘 있게 벌어 지는 력사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매우 뜻 깊은 사변으로 된다.

지금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뜻 깊은 태양절을 가장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 지고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준비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전통적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전례 없는 규모에서 준비되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기념행사들과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신뢰심과 흠모심이 얼마나 높고 뜨거운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념원을 심장깊이 새기고 4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김일성**민족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자기 수령이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억세게 투쟁하여 왔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오랜 혁명투쟁의 나날에 자기 수령제일주의정신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체 인민이 떨쳐 나 이번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온 누리에 힘 있게 떨쳐 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 피워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 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더욱 앞당겨 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이 고귀한 전통을 이어 올해의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걸출한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 온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비약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통하여 불패의 당과 군대를 건설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얼마나 거대한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혁명선배, 혁명의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심이 강한것이다. 력사를 놓고 보면 진정한 혁명가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혁명앞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 오든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를 목숨으로 지켰다.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관을 적극 따라 배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철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 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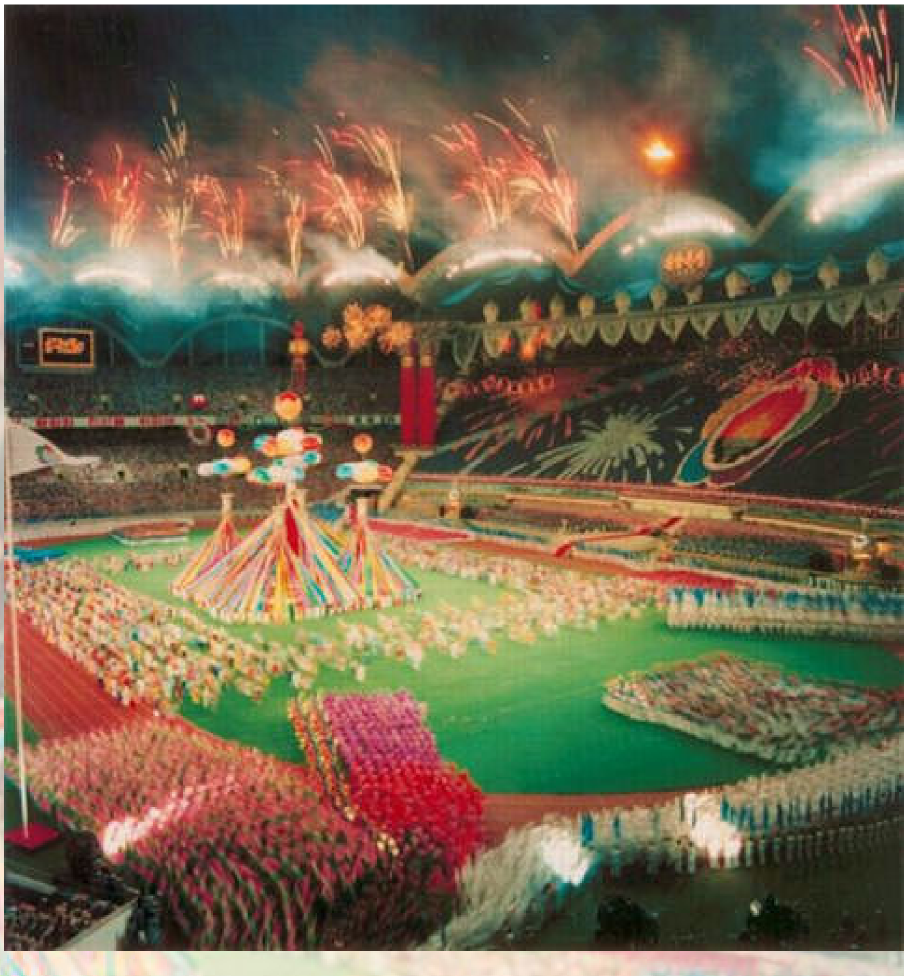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교시가운데서 이미 관철한것과 아직 집행하지 못한것을 엄격히 따져 보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제작하고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운 라남로동계급의 숭고한 풍모와 투쟁기풍은 전체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귀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 주신 라남의 봉화 따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과감히 떨쳐 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제일 큰 념원은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는것이였으며 인민들의 행복은 수령님의 기쁨이였고 락이였다.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럼없이 살게 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최근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도 하고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도 많이 일떠세웠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닭공장들과 기초식품공장들을 비롯한 생산기지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사의 날이다. 우리 인민에게 기쁨과 환희의 명절은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보다 더 경사스럽고 의의 있는 명절은 없다. 전국각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가장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가야 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최대의 걸작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칭송하는 모임들을 비롯한 선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 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혁명적랑만과 정서로 들끓고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민족의 긍지를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태양절기념행사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의의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누구나 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뜻 깊은 태양절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드높은 정치적열의에 넘쳐 과감히 떨쳐 일어 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할 때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투쟁의 봄을 맞은 청년학생들에게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1일

청년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겨울 방학을 마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과 함께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이 땅에서의 봄은 청년학생들이 개학과 함께 약동하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정의와 애국을 위해 투쟁의 불을 지피는 계절입니다. 해마다 불가항력의 기상을 안고 솟구쳐 오른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바로 이 봄철 투쟁에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갖고 요원의 불길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 빛나게 기록된 4.19봉기도, 영웅적인 광주민중항쟁도, 87년 6월민중항쟁도 바로 이 봄철 투쟁에서 발산되어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분출됐습니다.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전국민적 투쟁의 분화구로 된 것입니다. 특히 2002년 투쟁의 봄을 맞은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청년학생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올 정초부터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민주투쟁과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 이북에 대한 주적론철회,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철회촉구를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진척시켰습니다.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관련해 반미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고 마침내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투쟁으로 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과 조선일보의 친미사대주의, 반민족, 반통일적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이 범국민적으로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중이 이미 지펴올린 투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번져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마땅히 투쟁의 기수, 선봉장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틀고나가야 할 통일이정표입니다. 자주통일의 지름길도 바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이미 결의한대로 이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내놓은 3대 호소, 3대 제의실현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반민족적 책동과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야 합니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주되는 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철천의 원수입니다.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 9.11테러를 구실로 한 전력증강책동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3대 호소, 3대 제의를 내놓자마자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화약내 풍기는 폭언을 한데 이어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방한으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통일염원에 칼질을 한 것도 다름아닌 부시, 바로 미국입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을 가로막는 통일의 원수이며 반미투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투쟁과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선봉에 서서 대중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되찾기, 양민학살진상규명, 무기강매반대 등 반미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더욱 완강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는 구호를 들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속에 남아 있는 친미의식구조를 반미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친미예속으로 얼룩진 이 땅을 반미자주의 열풍이 몰아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에서 나서 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과 조선일보는 다같이 미국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이고 매문지이며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반미투쟁과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을 현실의 요구에 걸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심화시켜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선 등 합법적인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회창과 조선일보의 수족을 얽어매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 역적들을 민중의 심판대에 끌어내는 자리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북에 대한 주적론 철회,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투쟁의 봄을 맞은 청년학생들이 이후에도 투쟁의 기수답게 대중투쟁의 선봉에서 싸워나가려면 학생운동의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학생운동에서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우선 백만학도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체인 한총련을 청년학생들의 지향과 이익의 결집체로, 투쟁력이 강한 조직으로 정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학도가 한총련의 깃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학생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0기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싸워나갈데 관한 9기 한총련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서 한총련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조직력과 단결력, 투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또한 노학연대, 농학연대를 비롯해서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행동을 실현하며 온갖 계기와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승리는 정의와 애국에 살고 민중의 편에 싸우며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편에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승리를 향해 더욱 힘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백두의 총대바람

구동신

허리치는 눈길속
하늘땅을 휩쓰는 누보라
뼈속까지 스며 드는 강추위
태고연한 백두밀림 혁명전적지들
그이께선 련 3일째 찾고 찾으시여라

청봉, 베개봉, 무산지구…
다가서는 한그루 구호나무에서도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시며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갈 불 타는 신념으로
우리 장군님 헤쳐 가시는 백두의 눈보라길

그 길엔 뜨겁게 어려 있어라
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았어도
90년 대 헤쳐 온《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
우리 이겨 낸 《쳐창즈》의 굶주림도
간고했던 《소왕청방어전투》도
수령결사옹위의 《7련대 나팔소리》도
충신과 배신이 갈라 지던 41년도의 바람도…

그 길엔 긍지높이 새겨 져 있어라
조선은 다 굶어 쓰러진다고
온갖 원쑤들이 너털웃음 지을 때
세계를 놀래운 인공지구위성의 발사
쎄빌랴상공에 존엄높이
《세계마라손녀왕》이 휘날린 공화국기발
북남 삼천리가 울고 웃으며 신념의 강자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한 세계사적 사변

아, 가장 준엄한 시기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빨찌산의 녀장군 어머님의 당부를 지켜
언제나 빨찌산의 아들로
백두의 눈보라를 총대바람으로
앞장 서 일으키신 우리 장군님

원쑤들은 계산 못했다
이 땅에
큰물지고 가물에 타는 논밭은 계산했어도
백두산장군이 일으키는 총대의 무게
무적필승의 보검 백두의 총대바람은

하기에 오늘도 우리 장군님
이 땅 수천만 아들딸들 심장에
백두의 총대바람 끝없이 안겨 주며
백두의 눈보라길 걸으시나니

아,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 새 아침도
장군님 의지와 신념으로 안아 올
백두의 총대바람이여

주체91 3월 4일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사는 2일 협상을 했지만 민영화철회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을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업무복귀명령에 대해서 노조측이 불허하자 52명을 해임통지했고 정부당국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를 즉시 검거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14명과 추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10여명에 대해 2일부터 경찰과 함께 검거에 나서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6개 노조는 3일낮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체인력수급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발전노조의 파업을 강경진압하면 2차 정리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7대 종단의 주최로 400여명의 대학생들과 여러 단체들이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민족자주선언대회를 가졌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논평을 냈습니다.

한미당국이 올해부터 연합전시지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종합해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한미당국이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오던 두가지 훈련을 통합해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기필코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호전광들이 벌이려는 이번 훈련의 규모와 내용만 봐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다. 한미호전광들은 이 훈련에 주한미군과 국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해서 1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군장비들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무력을 최전방으로 투입해 야외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북침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더욱이 이 훈련이 북을 압살하기 위한 부시패거리들의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북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미호전광들은 저들의 전쟁책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제가 지른 불길에 영영 타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재야인사 홍모씨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에 동참하고 있는 군호전집단의 어리석은 책동에 분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호전집단은 미국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동조해나서는 것이 민족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뒤엎는 망동일뿐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타민족말살책동에 동조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고대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 군호전집단은 북침전쟁이 곧 이 땅의 우리 민중에게 불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방대한 병력과 첨단 군장비들이 대량투입된 가운데 협소한 영토에서 전개되게 될 전쟁이 남북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만회할수 없는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군호전집단은 이것을 명심하고 미국에 편승한 어리석은 북침전쟁기도를 당장 버려야한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08명의 친일행위자명단을 발표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은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한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3월 1일 태국 국왕을 의례방문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한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태국 총리사이의 회담이 3월 1일 정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발 맞추어 연이어 이북을 걸고 드는 망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5호를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3월 5일

인천에 사는 예비역장교 김태호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발전산업노사가 분규 8일째인 4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협상을 벌었으나 사측의 무성의로 성과없이 한 시간만에 결렬됐습니다.

이날 사측은 발전회사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대상 52명 가운데 47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는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사측은 또 발전설비운전분야 경력사원 100여명을 계약직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하는 등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호동노조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상당수의 요청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남총련소속 대학생 400여명은 1일 조선대학교 자주터에서 3.1절기념 및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자주통일청년학생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한 인사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한 이회창일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책임은 미국과 이회창일당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새해맞이공동행사는 2월 19일부터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미국의 지령대로 이 행사가 부시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행사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느니 통일연대를 참가시키면 안된다느니 뭐니하며 갖은 음모를 꾸몄다. 이회창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집권한후 용서하지 않겠다고 관계자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행사는 연기됐고 또 공안당국이 통일연대 인사들의 참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미국행각시에도 미국상전들을 만나 전략적 상호주의를 떠들며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도 더이상 추진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에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전개해 줄 것을 간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시의 악

의 축발언이 생겨나왔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계속된다고 한다.
이회창은 또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북미대화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 자신이 집권한후 미국산 첨단무기들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미국 당국자들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들은 이회창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 대통령자리를 따보려는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 부시를 악의 화신, 이회창을 악의 뿌리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회창은 국민의 요구대로 더이상 매국배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여성권의 걸림돌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와 노동단체에서 지난 1월 13일 백악관에서 TV를 보면서 과자 ≪프레첼≫를 먹다가 목에 걸려 졸도한 미국대통령 부시를 풍자한 노래 ≪기특한 과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시리아 외무성 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해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했던 스웨덴조선친선협회 크리스타로 론도그렌부위원장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끝없이 칭송했습니다.

주체91 3월 6일

발전노조파업이 9일째 접어든 가운데 4일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발전소매각방침을 유보하는 교섭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더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5일부터 매각저지를 위한 공청회 등 대국민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이 공청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사측은 협상이 결렬된뒤 노조측 교섭대표를 제외한 47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한데 이어서 파업노조원 200여명에 대한 2차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4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숙박업소에 투숙중인 철도노조 조직1국장 김모씨 등 노조간부 11명을 철도파업을 주도했다며 검거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전국대학생기행연합이 산하 경기동부기행연합대표인 경원대학교 박준마학우를 비롯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학생 등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2일 성명을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는 4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당 일각에서 이회창총재를 대선후보로 합의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합의추대를 반대했습니다.
이부총재는 또 당지도부 방침에 무조건 순응하는 분위기가 비주류주장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고 이것이 박근혜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1년에 2억원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100평이 넘는 고급빌라호텔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같은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훈의원은 또 이총재가 한달에 9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장남의 생활비도 대주고 있다면서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사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피해당사자와 유가족 4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5일 도쿄 고등법원 81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말레이시아 총리사이의 회담이 4일 정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사이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이북에 말레이시아 종려기름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대부 이용에 관한 이북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사이의 양해각서가 지난 4일 꾸알라 룸뿌르에서 조인됐습니다.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지난 4일 왕궁에서 말레이시아 국왕을 의례방문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3월 7일

민주노총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제2의 연대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이 교대로 명동성당에서 발전노조지도부와 함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파업을 주도한 가스노조 박상욱위원장과 김준섭부위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 200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당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주최로 민간통일운동참가탄압규탄 및 6.15남북공동선언실현 결의대회가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진행된 한반도평화를 위한 민족자주선언대회에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310인 민족자주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제15기 동총련 임시대의원대회는 2일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통일을 위한 대진군에 총진군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황혜로대표가 출소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실현에 한 목숨 바칠 신념을 안고 방북했던 황대표는 2년 6개월이상 옥중에서도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부시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에프15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규탄해 지난달 28일 성명을 냈습니다.

토마스 슈워츠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이 동북아의 안전과 안보의 중요한 위협요인이라느니 제2의 미사일과 재래식무기의 확산국이니 뭐니하며 북을 또다시 걸고든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미상원 국방위원회에서 한 슈워츠의 주장은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걸고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며 저들의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강도적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세계적으로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제일 많이 생산해 팔아먹고 있는 미국이 북을 제1의 미사일과 재래식무기의 확산국으로 걸고 든 것은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슈워츠의 이같은 궤변은 북을 걸고 이 땅에서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확대하며 이를 구실로 저들의 퇴화된 무기들을 대량 팔아 돈벌이를 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백을 전도한 궤변으로 우리 민족을 모독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슈워츠는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인권문제를 갖고 또다시 이북을 걸고 든 것과 관련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무부가 3일에 발표한 ≪2002년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데서 이북에 대한 판에 박은 험담을 늘어놓은데 언급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혹심한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지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 미국은 유엔인권기구에서마저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대변인은 이러한 미국이 제 코도 못씻는 주제에 분수없이 조종관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조소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저들의 인권수준을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할수록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 고립만을 더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5일 유럽연합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등의 **수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시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주체91 3월 8일

각계 여성들이 이북 여성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전소매각을 강행하고 노동탄압을 계속할 경우 제2의 연대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력대란을 우려하면서도 전력대화는 거부하고 있다며 사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책임이라며 TV공개토론 등을 통해 먼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원재워주기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9일 전국 14개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발전소매각반대범국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와 징계 등이 계속되고 철도민영화법안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투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6일밤에 열린 중앙쟁의대책회의에서 파업철회이후의 투쟁계획을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기업노조파업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발전소매각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전소의 미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보호를 우선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한다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조파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계 여성들이 국제부인의 날을 맞으며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참된 권리를 찾고야 말 굳센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모씨는 이 땅에도 해마다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은 찾아오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란 말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우리 여성들은 의연히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해서 온갖 차별과 천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정치에서의 참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과 꼭같은 업종에서 꼭같은 일을 해도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훨씬 못미치는 임금이 차례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다. 취직과 교육, 노동조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들은 참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인격과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써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 장식의 대상, 쾌락의 대상으로 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같은 현실을 더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참된 권리를 쟁취해야한다. 여기에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을 맞는 참의미가 있는줄 안다.≫

여러 단체들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의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월드컵을 계기로 이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삼재부총재가 7일 부총재직을 사퇴하고 총재와 대선후보경선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삼재부총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전당대회는 민주적인 장이 돼야한다면서 모양만 갖춘 경선을 위한 경선은 당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며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삼재가 경선출마를 포기한 것은 이회창이 형식적인 경선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와 총재직을 독차지하려는데 대한 강한 반발의 표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이회창이 지난 97년 대선 당시 구기동 자택을 산 이후에 빌라와 잠실의 아파트 등 거주지를 네차례이상 옮겼지만 단 한번도 거액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변인은 빌라가 비록 사돈집이라도 한달 임대료가 1천만원인 만큼 이총재가 47개월간 공짜로 살았다면 4억7000만원의 증여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증여세포탈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회창의 후원금이 지난해 2억9500만원이고 지난 99년에는 1억원에도 못미쳐 국회의원 가운데 235위를 기록했는데도 이회창은 지금까지 무슨 재주로 고급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빌라 202호의 소유자는 윤모씨로 돼 있지만 이를 전세내 이총재에게 빌려준 사람의 신원이 불투명하다며 신원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의원은 이회창이 97년 불법적으로 모은 대선자금 236억7000만원 가운데 검찰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110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치자금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주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가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수감된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노동자,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소집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7일 발표됐습니다.

이북과 러시아사이의 친선의 상징으로 라선시 두만강역지구에 특색있게 건설된 조로친선각이 개관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7일 미국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브라이언 윌슨대표를 단장으

로 하는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1일 라오스국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몽골 ≪고르왕-에르데네≫교원대학 3학년 기자학급이 ≪**김정일**학급≫으로 명명됐습니다.

주체91 3월 9일

한국노총은 국가기간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달말 전조직 쟁의행위신고를 통해 집중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정부와 철도청이 지난달 합의를 어기고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위원장은 또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방침철회와 철도 해고노동자의 원직복귀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임단협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철회한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재파업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에서는 발전산업노사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노사협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재파업을 해야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6일밤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산업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노조사이의 단체협상을 직권중재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조는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사이의 자율교섭에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가 중개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노동위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협의만 명시해 노조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파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인사 988명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파업사태로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에 쫓겨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백낙청서울대교수, 문규현신부 등 각계 인사 98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와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완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8일 여성노동 3대 과제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대학총학생회들로 구성된 교육학생연대는 7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학은 부당한 등록금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회창이 지난 97년 대선이후 네차례이상 이사를 했지만 아파트전세 등의 재산변동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척이 제공한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았다면 임대료 4억7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행위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생한 이종재의 손녀에 대해서도 시민권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총련의 각 본부들에서 부시의 망각을 규탄하는 대중강연이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3.8국제부녀절 92돌기념 중앙보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중국 홍콩, 마카오 ≪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인 중국 광동(마카오) 려유유한공사 총경리 좌위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연습장면들을 보고 공연준비 과정이 너무도 손색이 없는데 대해 진심으로 탄복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진행된 2.16경축집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난 5일 프랑스 수상이 이스라엘 수상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2월 10일 이집트 **산협회에서 ≪특출한 정치실력≫이라는 제목의 불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구소련 국방성이였던 드미뜨리 야조프 원수가 러시아 신문 ≪파트리오트≫ 제6호에 ≪인간이 창조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북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신문 ≪텐 티안 마이≫ 1일자가 ≪위인과 명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북의 명산들이 자기의 이름을 더욱 빛내이게 된 것은 **김정일**영도자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끊임없는 노고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나라 방송, 신문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이북 민중의 혁명적 의지를 소개하는 글을 보도했습니다.

주체91 3월 10일

미국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브라이언 윌슨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8일 신천박물관을 참관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2월 7일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2.16경축집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리비아 카제다지역과 우즈베끼스딴 타슈켄트에서는 경축공연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적도기니 말라보경기장, 리비아 브라크로 벨긴지역, 페루 페세손 마이야경기장에서는 태권도 모범시연과 체육경기가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2월 16일자가 ≪영웅적 민중 위대한 전변≫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주재 책임특파원의 글을 실었습니다.